

보험동향

- | 총괄 김세중 (연구위원)
- | 경영환경 김윤진 (연구원)
김유미 (연구원)
김혜란 (연구원)
- | 보험동향 최 원 (수석연구원)
김혜란 (연구원)
김유미 (연구원)



98_호

[2021 여름호]

목 차

I. 경영환경	
1. 경제	2
2. 금융	9
3. 자금흐름	13
4. 규제·제도	15
II. 보험동향	
1. 성장성	18
2. 수익성	41
3. 리스크	50
4. 시장경쟁	53

I

경영환경

- 2021년 1/4분기 세계경제는 백신보급·접종 확대와 지속적 경기부양 효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
 - 2021년 1/4분기 세계 무역과 산업 생산은 2020년 2/4분기 큰 폭으로 감소 후 3분기 연속 반등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함
- 2021년 1/4분기 우리나라는 1.9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,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며 2021년에는 4.0%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
 - 2021년 1/4분기 민간소비와 소매판매가 모두 증가하였고, 수출입 증가율 또한 2020년 2/4분기의 큰 폭 하락 이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.8%, 4.4%로 전망함
-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.5%로 동결함
 - 2021년 경제성장률은 4.0%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국내 금융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-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로 전 구간에서 하락하였으며, 장단기 금리격차가 축소됨
 -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로 장기물 상단이 제한되며, 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됨
- 2021년 1/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, 국내외 주식 거래는 전기 대비 증가한 반면, 보험 및 연금, 채권 거래는 감소함
 - 2021년 1/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.4%로 전년도 1분기에 기록한 10년 내 역대 최저치(13.3%)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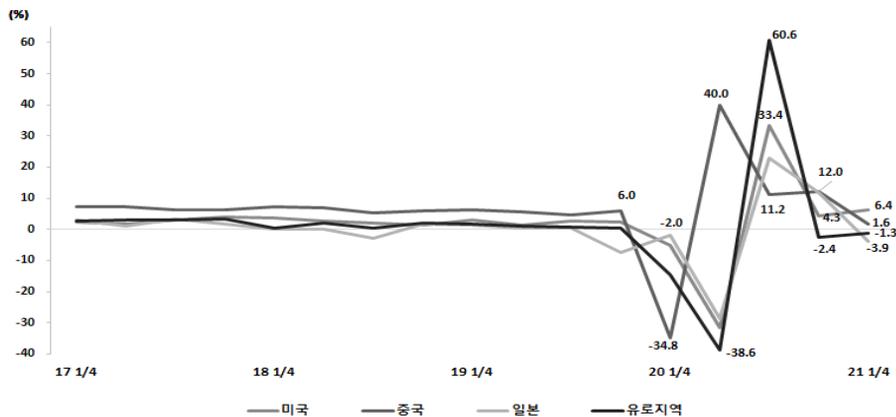
1. 경제

가. 세계경제

○ 2021년 1/4분기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보급·접종 확대와 지속적 경기부양정책 효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

- 미국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에 따른 소비 증가 및 기업의 생산활동 재개 등으로 6.4%를 기록함¹⁾
- 중국 GDP 성장률은 1.6%로 전분기보다 10.4%p 하락하였으나,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하며 양호한 경기 회복흐름을 이어감
- 일본 경제성장률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행된 봉쇄조치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및 주택투자 축소 등으로 전분기 성장률 대비 15.6%p 하락한 -3.9%를 기록함²⁾
- 유로지역은 2021년 1/4분기에 투자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(-1.3%)이 지속됨³⁾

〈그림 1〉 주요국 경제성장률



주: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, 계절조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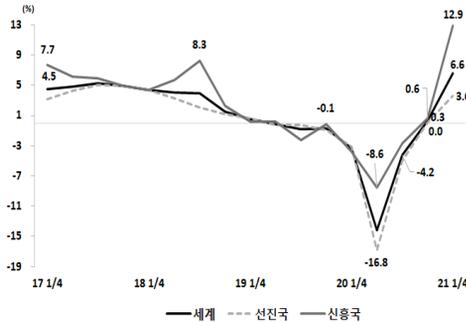
자료: Bureau of Economic Analysis(2021. 6); 중국 국가통계국(2021. 7); 일본 내각부(2021. 6); Eurostat(2021. 6)

1)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ews Release(2021. 6), "Gross Domestic Product by State", 1st Quarter 2021
2)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(2021. 6), "Quarterly Estimates of GDP for January - March 2021"
3) Eurostat(2021. 6), "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irst quarter of 2021"

○ 2021년 1/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과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6.6%, 5.5%로 2020년 2/4분기 큰 폭의 하락 후 3분기 연속 반등함

- 선진국 무역규모는 3.6% 증가하였고, 신흥국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12.9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,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.9% 증가하였고,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2.3%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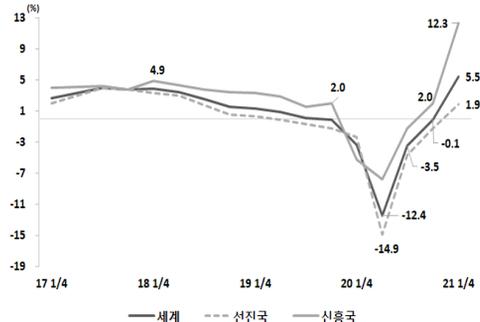
〈그림 2〉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임

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(2021. 6)

〈그림 3〉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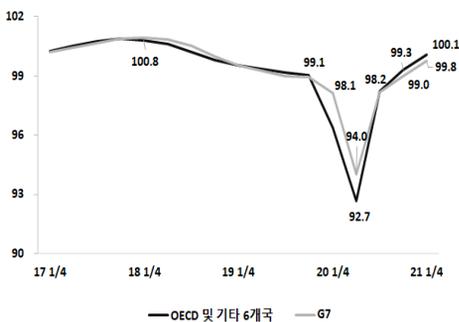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임

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(2021. 6)

○ 2021년 1/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⁴⁾는 100.1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4/4분기 수준을 상회함

-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9.8로 전분기보다 0.8p 상승하였고, 미국, 유로지역, 일본은 전분기보다 1.0p, 0.6p, 0.6p 상승한 99.8, 99.3, 100.1을 기록하였으며,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1.0p 상승한 101.7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

〈그림 4〉 세계 경기선행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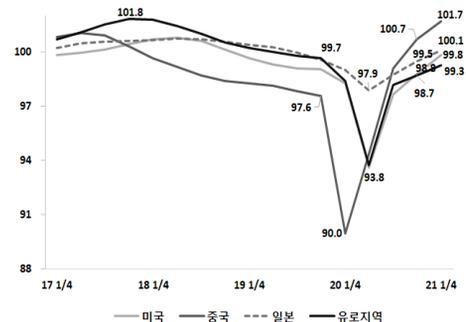


주: 1)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
2) 기타 6개국은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임

자료: OECD

〈그림 5〉 주요국 경기선행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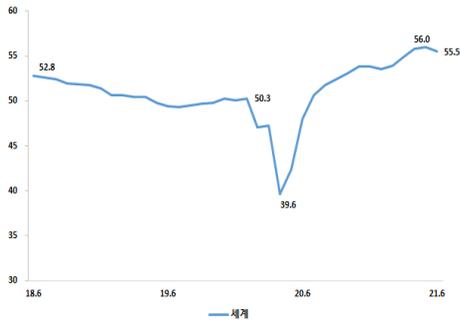


4)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,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, 내려가면 경기 하락을 의미함

○ 2021년 6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⁵⁾는 55.5로 최근 5년 이내 최고치였던 전분기 56.0에서 소폭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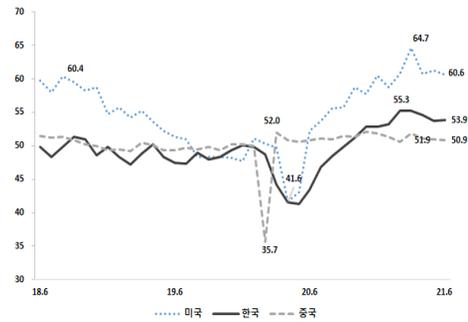
- 2021년 6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60.6으로 지난 3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고 있고, 한국과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각각 53.9, 50.9를 기록함

〈그림 6〉 세계 제조업 PMI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7〉 주요국 제조업 PMI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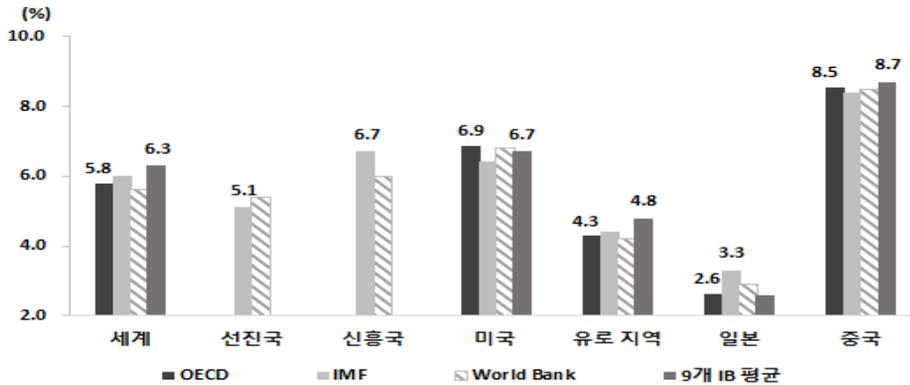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

○ 주요 기관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 확대로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

- OECD는 선진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근거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1년 3월 전망했던 5.6%에서 2021년 5월 5.8%로 상향 조정함⁶⁾

〈그림 8〉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

주: 9개 IB: Barclays, BoA-ML, Citi, BnP Paribas, Goldman Sachs, J.P. Morgan, Nomura, Societe Generale, UBS
 자료: IMF(2021. 4); OECD(2021. 5); World Bank(2021. 6); 9개 IB 평균(2021. 6)

5) PMI(Purchasing Managers' Index)는 생산, 신규주문, 수출주문, 취업, 부품구매, 주문잔고, 납품업체 배송,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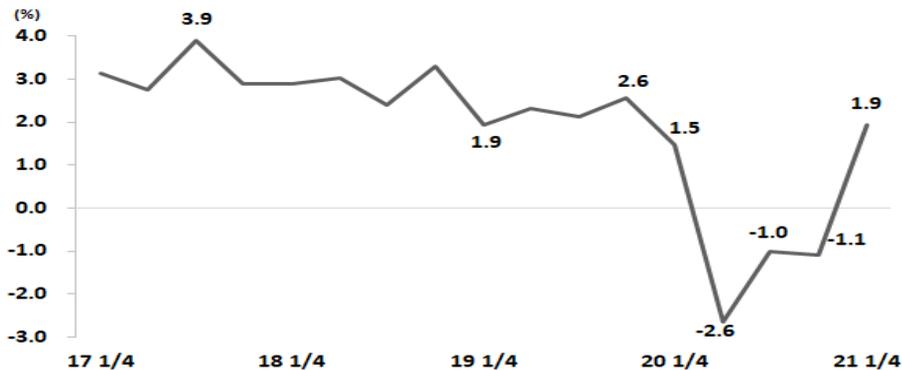
6) OECD(2021. 5), "OECD Economic Outlook", Volume 2021, Issue 1

나. 국내경제

○ 2021년 1/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.9%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, 2020년 2/4분기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

-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.2%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됨
 -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.4%로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고,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
 - 소비자심리지수는 97.8로 전분기 대비 3.4p 상승하였으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
- 설비투자,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됨⁷⁾
 - 설비투자는 1월과 3월 특수 산업용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⁸⁾ 전년 동기 대비 12.4% 증가하였고,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.2% 증가한 반면,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.8% 감소하며 3분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임
 - 기계수주는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15.5% 증가하였고, 건설수주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7.3% 증가함
- 2021년 1/4분기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5.1%, 4.1%로, 2020년 2/4분기 큰 폭의 하락 후 3분기 연속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
〈그림 9〉 국내 경제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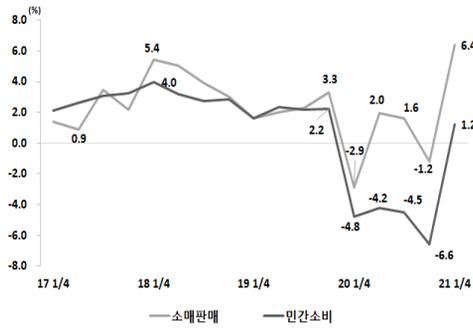
주: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
자료: 한국은행

7) 통계청 보도자료(2021. 4), “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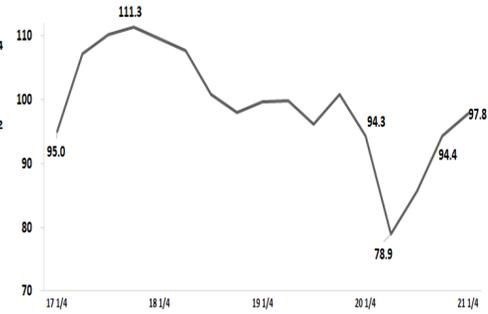
8) 통계청 보도자료(2021. 4), “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”; 통계청 보도자료(2021. 2), “2021년 1월 산업활동동향”

〈그림 10〉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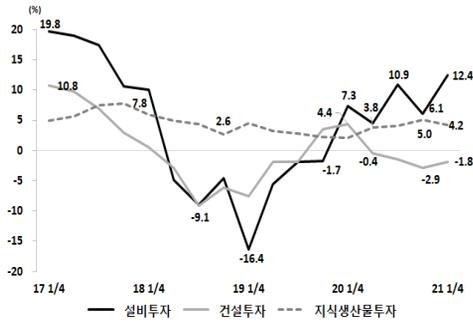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〈그림 11〉 소비자심리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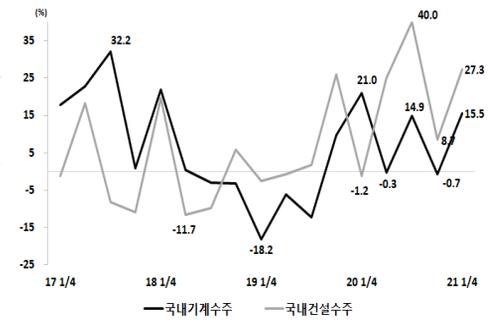
주: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2〉 건설투자, 설비투자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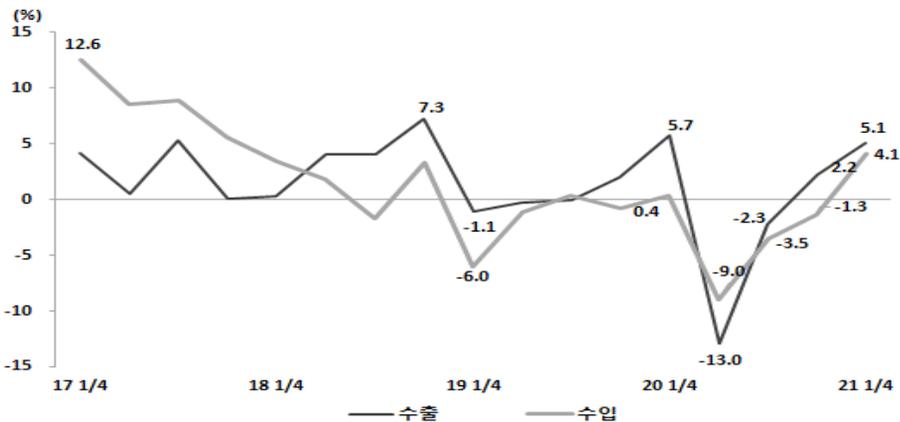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3〉 기계수주, 건설수주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통계청

〈그림 14〉 수출입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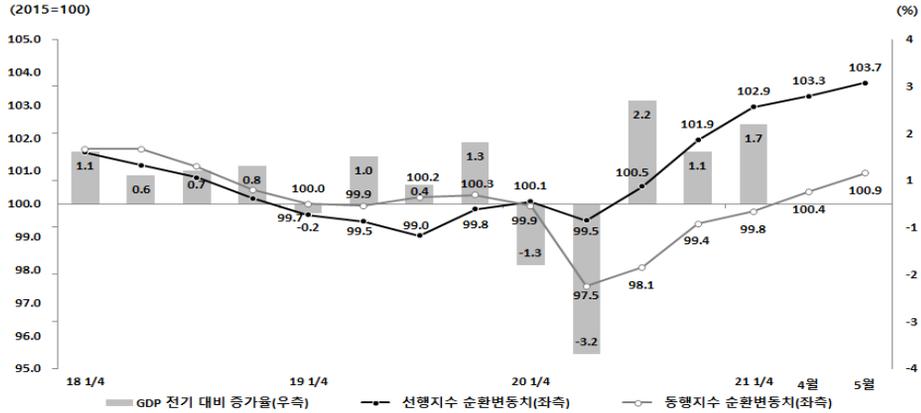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○ 2021년 1/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,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102.9, 99.8로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

• 2021년 5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103.7와 100.9로 상승세를 지속함

〈그림 15〉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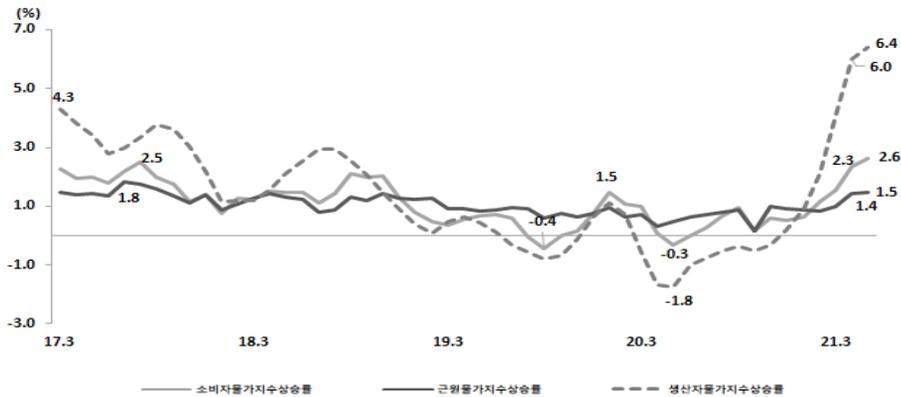


주: 2021년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

자료: 한국은행; 통계청

○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6%로 2020년 5월 -0.3%를 기록한 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와 석유류 가격 급등의 영향이 컸음⁹⁾

〈그림 16〉 물가상승률



주: 1)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

2) 근원물가지수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

자료: 한국은행

9) 기획재정부(2021. 4; 2021. 5), 「최근경제동향」

○ 주요 기관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소비 회복으로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

- 한국은행과 KDI는 국내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며,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각각 4.0%, 3.8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
-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⁰⁾은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3.6%(Nomura)에서 최고 5.0%(JP Morgan), 평균 4.4%로 전망함

〈표 1〉 국내 주요 기관 전망

(단위: %, 억 달러)

구분	2019	2020	2021(F) ¹⁾		2022(F) ¹⁾	
			한국은행 ²⁾	KDI ³⁾	한국은행 ²⁾	KDI ³⁾
실질 GDP	2.0	-1.0	4.0	3.8	3.0	3.0
민간소비	1.7	-4.9	2.5	2.5	3.5	4.0
설비투자	-7.5	6.8	7.5	8.5	3.5	2.8
건설투자	-2.5	-0.1	1.3	1.4	2.5	3.5
지식생산물투자	3.0	3.6	4.3	4.1	3.8	3.4
상품수출	0.5	-0.5	9.0	8.6	2.5	2.8
상품수입	-0.8	-0.1	8.3	7.9	3.5	3.2
실업률	3.8	4.0	3.9	4.1	3.8	3.9
소비자물가	0.4	0.5	1.8	1.7	1.4	1.1
경상수지	600	753	700	829	650	685
상품수지	769	819	710	867	730	836
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수지	-169	-67	-10	-39	-80	-151

주: 1) 전망치임

2) 한국은행(2021. 5), 『경제전망보고서』

3) KDI(2021. 5), 『KDI경제전망』

자료: 한국은행; KD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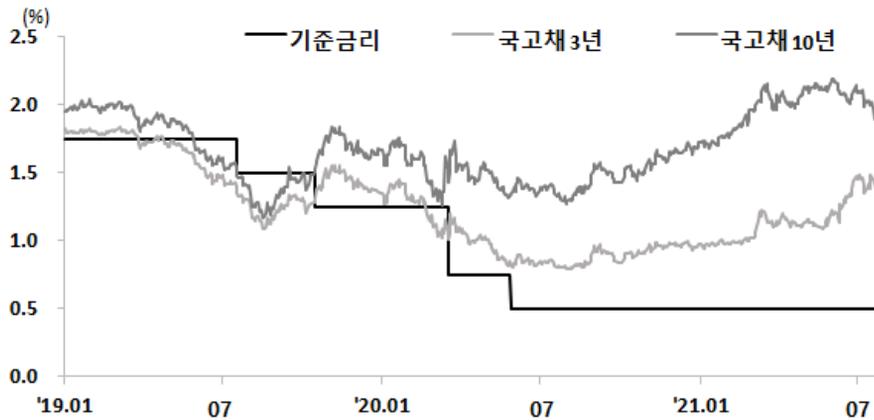
10) 9개 IB(Barclays, BoA-ML, Citi, Goldman Sachs, J.P. Morgan, Nomura, Credit Suisse, HSBC, UBS), 2021년 6월 말 기준임

2. 금융

가. 금리

-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.5%에서 동결하였고¹¹⁾ 경기 회복세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으나, 7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전 구간에서 하락함
 -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으나,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.5%에서 동결함¹²⁾
 -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,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부양책 시행을 앞두고 6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함
 - 그러나 7월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국내 수출 개선세 둔화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장기물은 하락하였고 단기물은 1.4%선에서 등락을 반복함
 -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6월 최고치인 2.20%에서 7월 1.89%로 하락함

〈그림 17〉 기준금리, 장단기 국고채 금리


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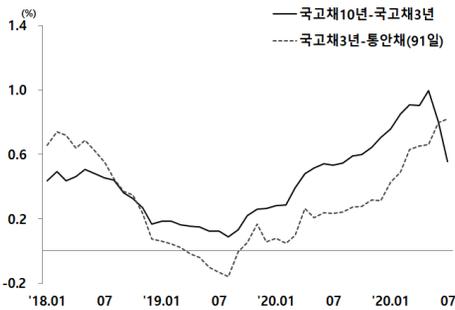
11) 한국은행(2021. 7. 15), 『통화정책방향』

12) 한국은행(2021. 7. 15), 『통화정책방향』

○ 장단기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와 국고채 금리 지표물 변경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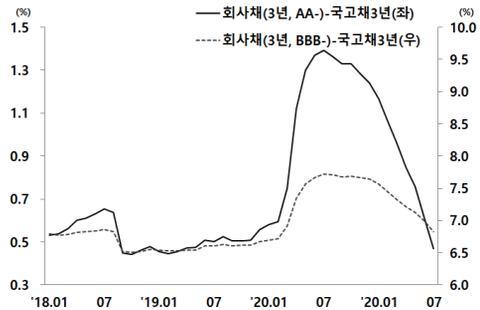
- 장단기 스프레드(10년물 - 3년물)는 경기 회복세로 장기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5월 100bp를 돌파하였으나,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의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, 단기물이 빠르게 상승하며 7월 말 43.4bp로 축소됨
- 신용 스프레드(회사채AA-, 국고채 3년물)는 유동성 호조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회사채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, 국고채 금리 지표물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가 더해지면서 축소세를 보임

〈그림 18〉 장단기 스프레드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9〉 신용스프레드



자료: 한국은행

○ 미국 국고채 금리는 경기회복과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통화 완화적 스탠스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됨

-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3년물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10년물의 경우 금리차가 소폭 축소됨

○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3/4분기 한국 3년물과 10년물 금리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함

- 2021년 3/4분기 한국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.38%, 2.17%로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0.26%p, 0.05%p 상향 조정함

〈표 2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

(단위: %)

미국 국고채(10년) 금리			한국 국고채(10년) 금리			한국 국고채(3년) 금리		
'21. 3Q	4Q	'22. 1Q	'21. 3Q	4Q	'22. 1Q	'21. 3Q	4Q	'22. 1Q
1.68	1.80	1.89	2.17	2.17	2.26	1.38	1.43	1.48

주: 2021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8월 초 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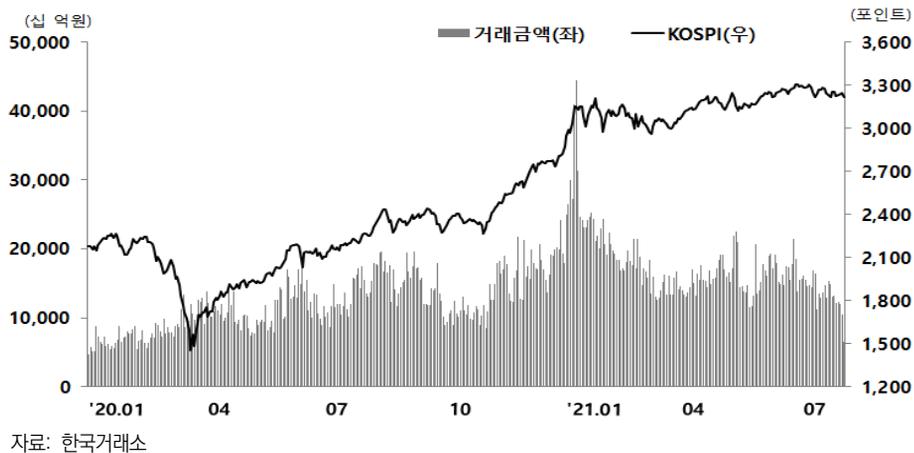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나. 주가 및 환율

○ 코스피(KOSPI) 지수는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등 경기 회복세와 코로나19 백신접종 진전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감

- 5월 코스피 지수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부담과 대규모 공매도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 확대 등으로 3,200선을 회복하며 3,204포인트에 마감함¹³⁾
- 6월에는 주요 기업 2분기 실적 개선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진전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3,300선을 돌파하였으나 국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
 - 4월부터 7월 코스피 지수는 3,069~3,316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7월 말 3,200선에서 마감함

〈그림 20〉 주가지수 추이



○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 확대 및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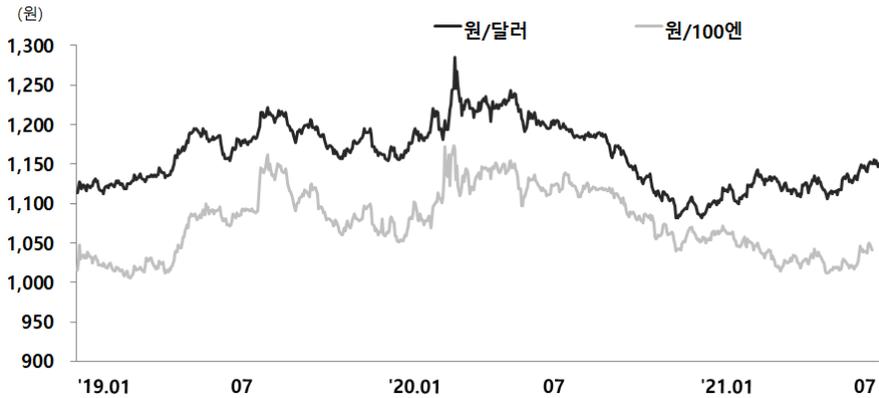
- 4월 원/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, 선박수주 호조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으로 1,108원까지 하락하였으나 5월 외국인 주식 매도,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1,130원대까지 상승함
-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의 긴축 전환 신호,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려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/달러 환율은 1,150원대로 상승함

13) 경향비즈(2021. 5. 31), “코스피 3,200선 회복... 외국인·개인 동반매수”

○ 원/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 위험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침

- 4월 이후 100엔당 원/엔 환율은 1,010원대에서 1,030원대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
- 7월 원/엔 환율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100엔당 1,140원대로 상승함

〈그림 21〉 원/달러 및 원/엔 환율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○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3/4분기 환율이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

- 원/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(자산매입 축소) 가능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

〈표 3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

(단위: 원, 엔, 달러)

구분	원/달러		엔/달러		달러/유로	
	'21. 2Q	'21. 3Q	'21. 2Q	'21. 3Q	'21. 2Q	'21. 3Q
Wells Fargo	1,126	1,170	110	111	1.19	1.17
Mizuho Bank		1,160		111		1.17
MUFG		1,110		109		1.19
JPMorgan Chase		1,135		110		1.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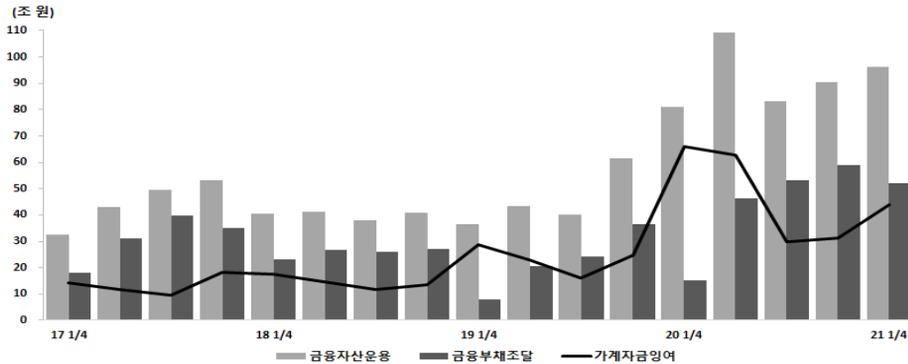
주: 2021년 2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8월 초 기준임

자료: Bloomberg

3. 자금흐름

- 2021년 1/4분기 가계부문¹⁴⁾의 자금잉여¹⁵⁾는 44.0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2.7조 원 증가하였음
 - 2021년 1/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96.1조 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 금융부채 조달은 52.1조 원으로 총 44.0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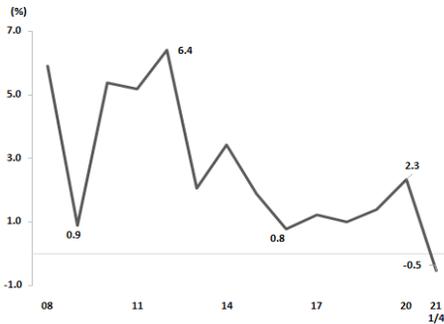
〈그림 22〉 가계자금잉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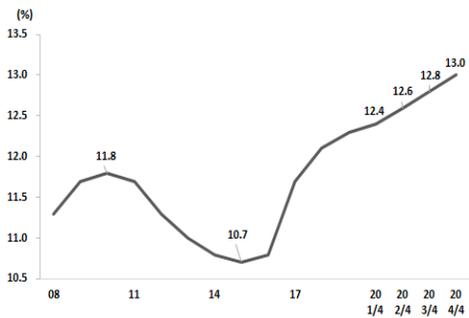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- 2021년 1/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.5% 하락하였고, 2020년 4/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은 13.0%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감

〈그림 23〉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



〈그림 24〉 DSR



- 주: 1)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
 2) 2020년 증가율은 '2인 이상 가구(농림어가 포함)'에서 '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'로 변경, 발표된 수치임

자료: BIS

자료: 통계청

14) 가계(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)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
 15)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,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

○ 2021년 1/4분기 가계부문에서 국내외 주식 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, 채권 거래는 축소됨

- 2021년 1/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.4%로 전년도 1/4분기에 기록한 10년 내 역대 최저치(13.3%)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

〈표 4〉 가계 금융상품 거래

(단위: 조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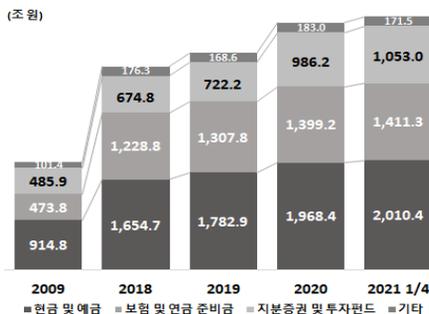
구분	현금 및 예금	보험 및 연금		채권	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	비거주자 발행주식	투자펀드	기타	합계
2017	105.4	83.3	(46.8)	-11.9	0.0	1.3	-3.6	3.6	178.1
2018	75.3	60.7	(37.8)	0.0	21.8	1.7	0.0	1.2	160.7
2019	130.7	72.0	(39.6)	-17.3	-7.9	2.1	2.0	0.0	181.6
2020	189.9	73.0	(20.1)	10.2	62.2	20.6	-6.6	14.5	363.8
2021. 1/4	41.9	13.8	(14.4)	-11.8	36.5	12.5	2.6	0.6	96.1

주: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한국은행

○ 2021년 1/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.4%로 2020년에 비해 0.4%p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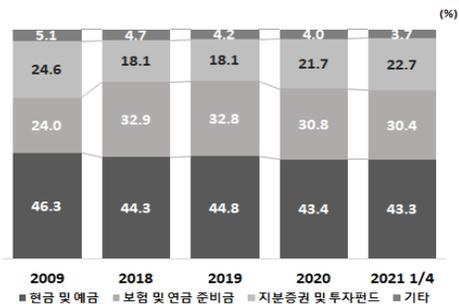
- 2021년 1/4분기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43.3%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22.7%로 전년도보다 1.0%p 증가함

〈그림 25〉 가계 금융자산 구성(금액)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26〉 가계 금융자산 구성(비중)



자료: 한국은행

4. 규제·제도

○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(2021. 6. 29 금융위원회)

-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급여(주계약)과 비급여(특약)으로 분리하면서,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되,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·할증되도록 함. 의료이용이 많으면 자기부담도 증가하도록 자기부담비율도 상향 조정함(급여: 10% → 20%, 비급여: 20% → 30%)
- 기존 실손보험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감소하며,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음. 7월부터 15개 보험회사(손보사 10개, 생보사 5개)가 제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할 예정임

○ 「숨은 내보험 찾아주기」 제도 개선 추진(2021. 6. 16 금융위원회)

- 2017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「내보험 찾아줌(Zoom)」을 개설함. 소비자는 「내보험 찾아줌(Zoom)」에서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지만, 조회 후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, 전화 요청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함. 2021년 하반기에는 「내보험 찾아줌(Zoom)」에서 보험금 확인 및 지급계좌를 입력하여 모든 숨은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

○ 기업회계기준서 제1171호(보험계약),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(2021. 6. 10 금융위원회)

-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부채를 원가 기준에서 현행가치로 평가하고, 보험수익은 현금주의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함. 보험회사는 시행일 전에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며, 금융당국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

○ 여행자보험 개선안을 포함한 「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·보호체계 개선방안」 심의·확정(2021. 6. 3 국무조정실)

-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음
- 이에 외교부에서 해외환자 이송·보호 전반을 총괄하고,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송 관련 비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여행자보험 상품을 개편할 것임.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·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

-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른 보험약관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 예고(2021. 5. 31 금융감독원)
 - 급여와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는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고,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함.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 3. 5)에 따른 소비자 권리 및 의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분쟁 예방을 위한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도 강화됨

-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2021. 5. 25 금융위원회)
 - 맞춤형 소액단기보험활성화를 위해 ‘소액단기전문 보험업’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,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완화하여 진입규제를 정비함. 이를 통해 반려동물(640만 가구), 레저, 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
 -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,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하고,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함

- 손해사정제도 개선(2021. 5. 25 금융위원회)
 -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특정 손해사정사(자회사)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,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함.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·객관성에 중점을 둔 손해사정 제도 개선을 추진함

- 「비대면·디지털 보험모집 규제」 개선(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)(2021. 5. 17 금융위원회)
 - 2021년 3월 발표한 「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」 중에서 「비대면·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」 과제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
 - 대면의무 완화, 반복서명 폐지, AI 음성봇 활용 허용, 하이브리드(전화 + 모바일) 모집 그리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 등의 개선을 통해 대면·전화·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상호결합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존 모집 방식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 함

- 4월부터 「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」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 확대(2021. 4. 1 금융위원회)
 -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가 「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」에서 보험 가입 여부가 조회되어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져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,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추가로 출시되어 가입 방법 및 절차가 보다 편리해질 것임

II

보험동향

- 2021년 1/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.9% 증가한 1,315조 원임
 -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.9% 증가하였으며,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.8% 증가함
 - 보험산업 자산 성장에는 보험료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확대와 이익잉여금 증가 등이 기여함
- 생명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실제사업비)은 2021년 1/4분기 3.3조 원 적자를 나타냄
 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.5% 증가한 28.0조 원임
 -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적자를 기록함
-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원수보험료 - 발생손해액 - 실제사업비)은 2021년 1/4분기 0.29조 원 흑자를 기록함
 -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.5% 증가한 24.5조 원임
 -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어 보험영업현금흐름이 흑자로 전환됨
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보험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함
 -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, 금리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, 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.3% 증가한 2.6조 원을 기록함
 -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손해율 개선과 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.5% 증가한 1.3조 원을 나타냄
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됨
 -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고 대형사는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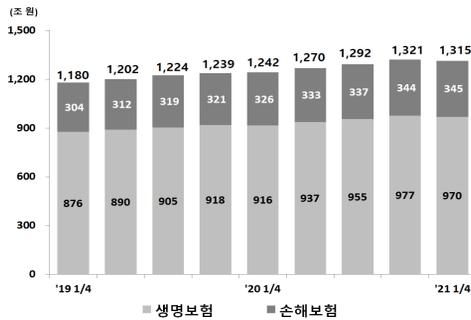
1. 성장성¹⁾

가. 자산

○ 2021년 1/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.9% 증가한 1,315조 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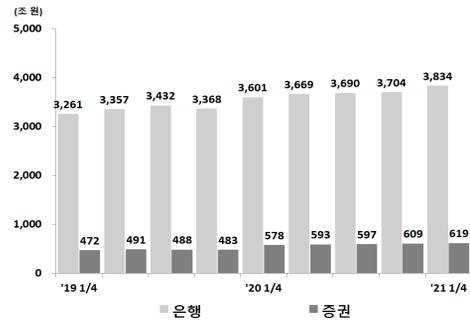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.9% 증가한 970조 원이며,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.8% 증가한 345조 원임
- 은행산업 총자산은 3,834조 원이고 증권산업 총자산은 619조 원이며,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.5%, 7.0% 증가함

〈그림 1〉 보험산업 자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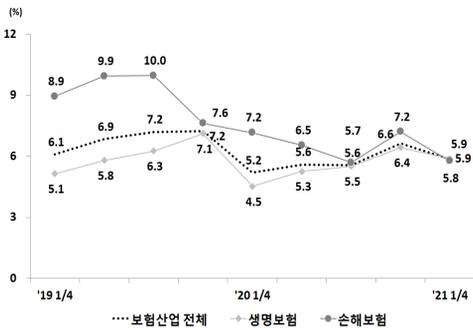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〉 은행 및 증권 자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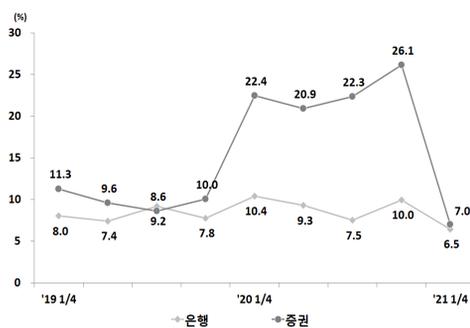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〈그림 3〉 보험산업 총자산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〉 은행 및 증권 총자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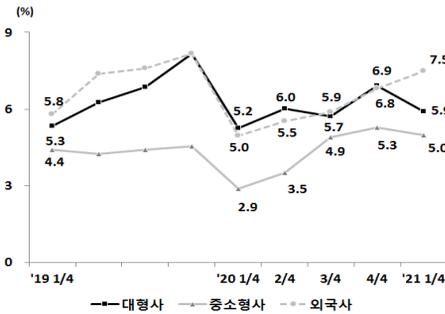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금융감독원

1)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하며,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,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.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는 적절할 수 있으나, 자산운용(투자영업)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자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²⁾³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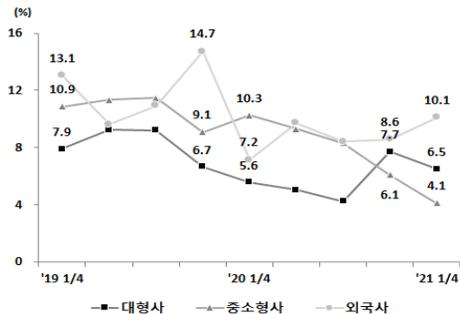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의 경우 2021년 1/4분기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자산 증가율이 7.5%로 가장 높았으며,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전년 동기 대비 자산 증가율은 각각 5.9%, 5.0%였음
-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 총자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.1%였으며,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6.5%, 4.1%임

〈그림 5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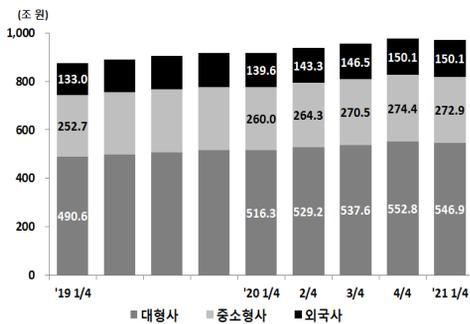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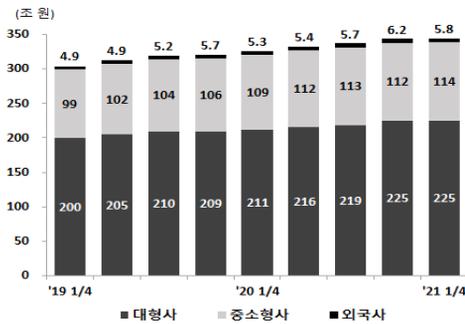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주: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 사이며, 중소형사는 12개사, 외국사는 9개사임

〈그림 8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



주: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사이며, 중소형사는 10개사, 외국사는 17개사임

- 2)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, 중소형사 12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(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)
- 3) 손해보험산업은 총 31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,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(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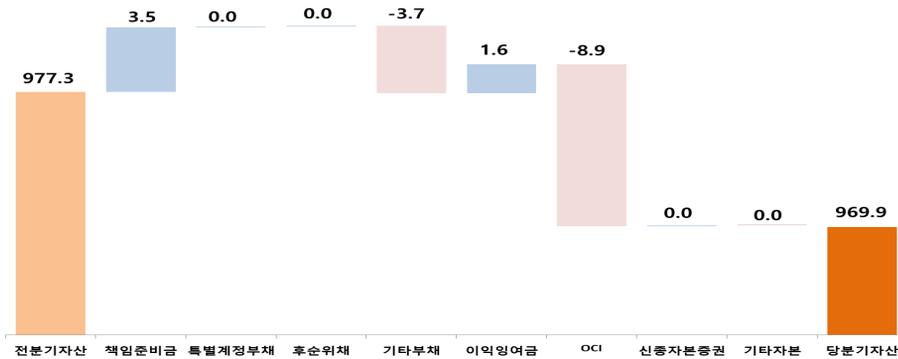
나. 생명보험 성장 요인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7.4조 원 감소한 969.9조 원임

- 책임준비금은 수입보험료 확대 등으로 총자산 증가에 3.5조 원 기여하였고, 이익잉여금 확대도 자산 성장에 1.6조 원 기여함
- 반면, 기타부채는 전분기 대비 3.7조 원 감소하였으며,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도 채권 평가이익 축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8.9조 원 감소함

〈그림 9〉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주: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 참고: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〉

-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‘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 + 적립이자 - (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) + 기타(LAT 추가 적립 등)’로 나타낼 수 있으나,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‘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’이 드러나지 않음
-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‘적립이자 - (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)’을 ‘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’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
 - 손익계산서로부터 ‘영업이익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책임준비금전입액’이므로 ‘책임준비금 전입액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’인데,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
 - 따라서, 책임준비금 증감
 - = 책임준비금전입액 + 기타
 - = [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] + 기타
 - = [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 + (재보험수익 - 재보험비용) + 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] +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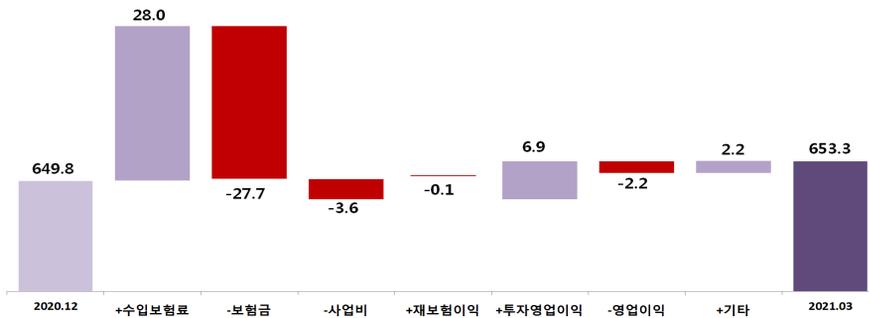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 책임준비금

○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.5조 원 증가한 653.3조 원임

-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사업비⁴⁾를 차감한 금액은 3.3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나, 투자영업이익은 6.9조 원 증가함

〈그림 10〉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

(단위: 조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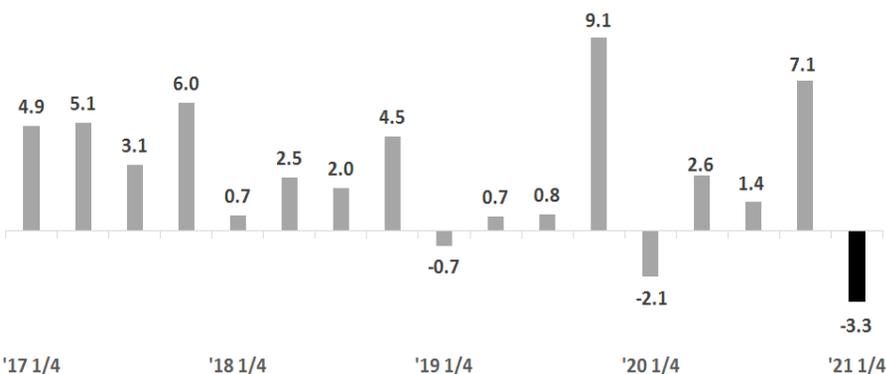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보험영업현금흐름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실제사업비)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 증가 등으로 인해 2021년 1/4분기 3.3조 원 적자를 나타냄

〈그림 11〉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

(단위: 조 원)



주: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이연전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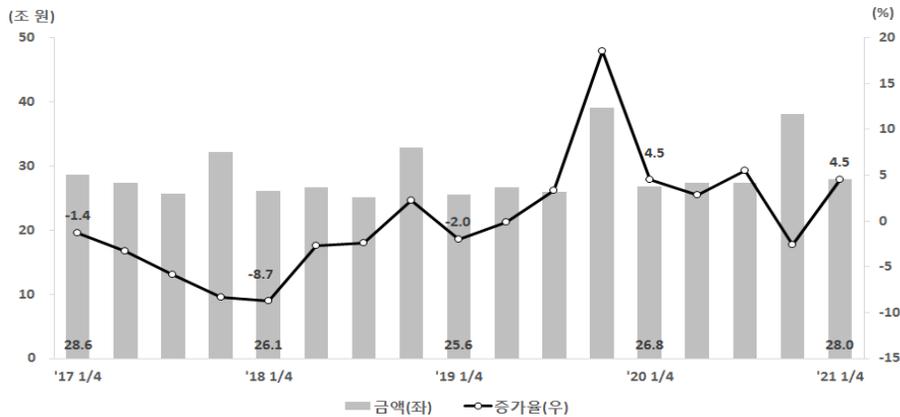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4)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

가) 생명보험 수입보험료

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4.5% 증가한 28.0조 원을 나타냄
- 종목별로 보면,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함
 -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.0% 증가한 11.8조 원이었으며, 이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와 변액종신 및 건강보험⁵⁾ 판매 확대가 원인임
 -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 경쟁력 확대 등으로 일시납을 중심으로 저축보험 판매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.9% 증가한 13.2조 원을 나타냄
 -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 초회보험료는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신규 판매는 증가하였으나, 계속보험료는 감소세를 보임
 -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.1% 감소한 2.8조 원이며,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.8% 감소한 0.21조 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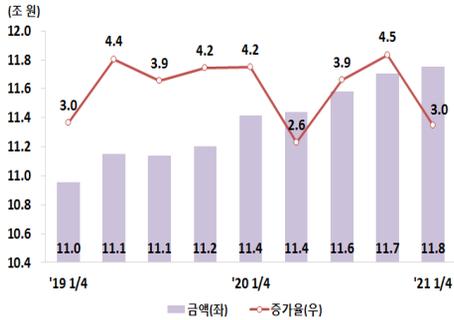
〈그림 12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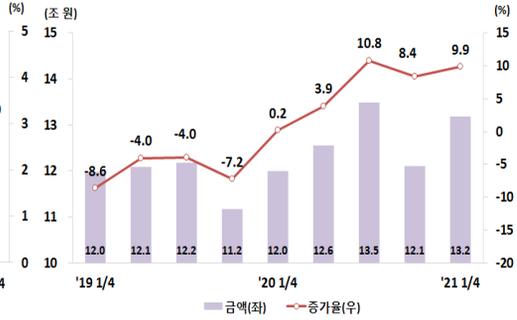
5) 종신보험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함

〈그림 13〉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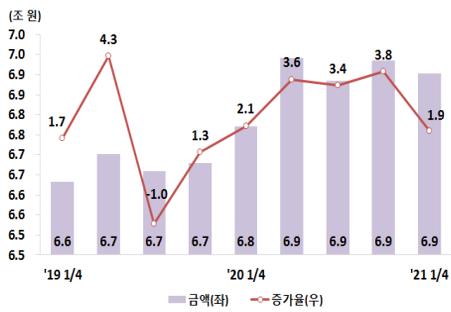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4〉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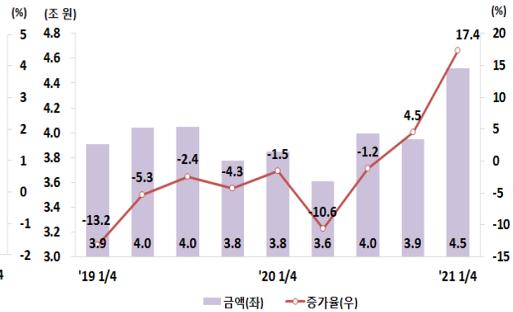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5〉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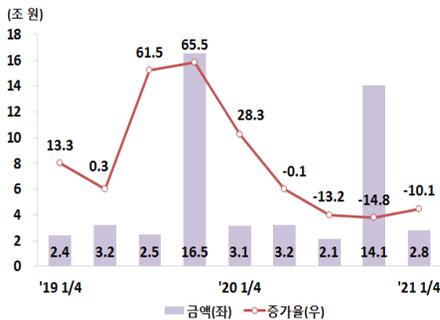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6〉 변액 저축성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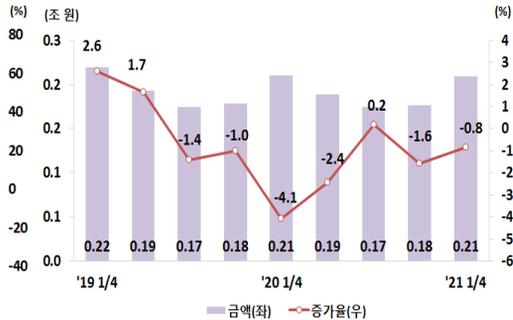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7〉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8〉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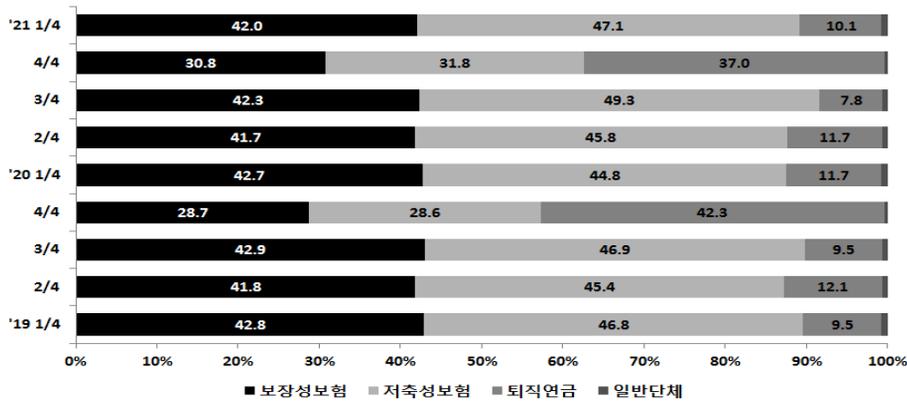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다른 종목들의 비중은 축소됨

- 저축성보험 비중은 저축보험 신규가입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3%p 확대된 47.1%를 나타냄
- 보장성보험 비중은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.7%p 축소된 42.0%를 기록함
- 퇴직연금 비중은 수입보험료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.6%p 축소된 10.1%를 나타냄

〈그림 19〉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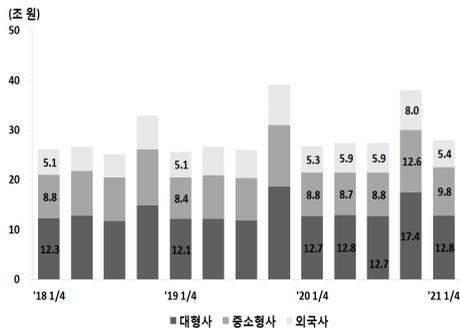


주: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회사 유형별로 보면, 2021년 1/4분기 중소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11.5%로 가장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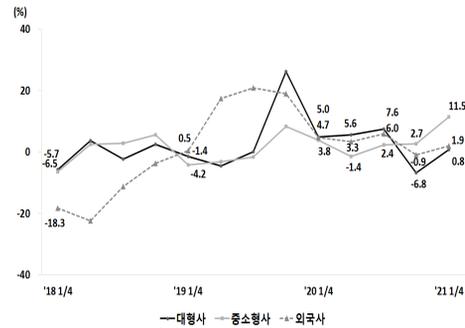
- 반면, 외국사와 대형사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1.9%, 0.8%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

〈그림 20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1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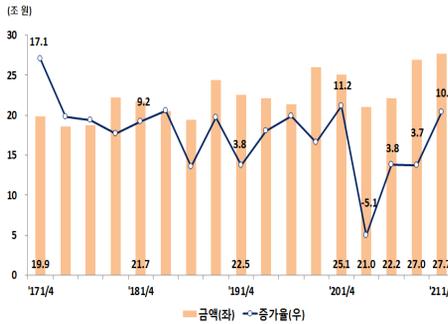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10.4% 증가하였으나,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5.5% 감소함

- 최근 지급보험금은 환급금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, 사업비는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

〈그림 22〉 보험금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3〉 사업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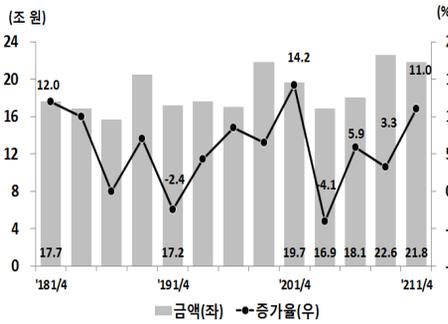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을 종목별로 보면, 환급금과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사망 및 상해 보험금과 배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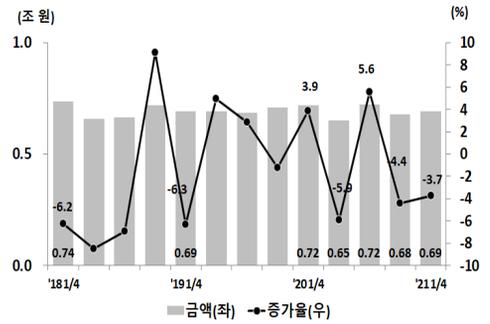
- 환급금과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증가는 해지 증가와 퇴직연금 수령 확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

〈그림 24〉 환급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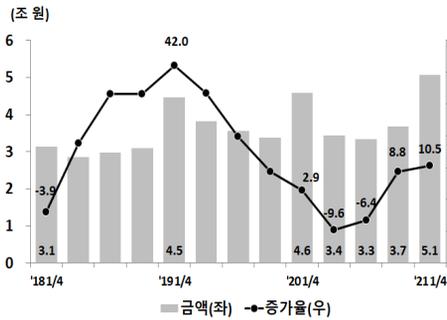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5〉 사망 및 상해 보험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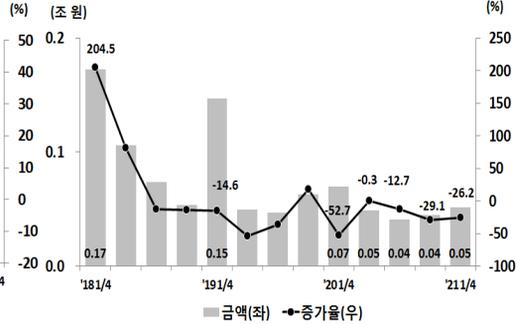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6〉 만기 및 퇴직 보험금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7〉 배당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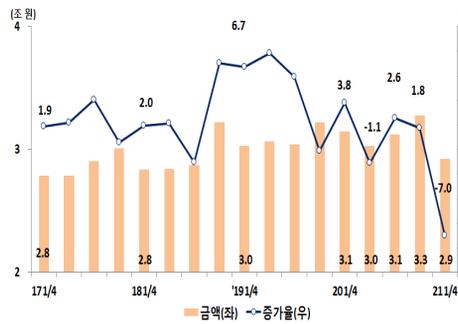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,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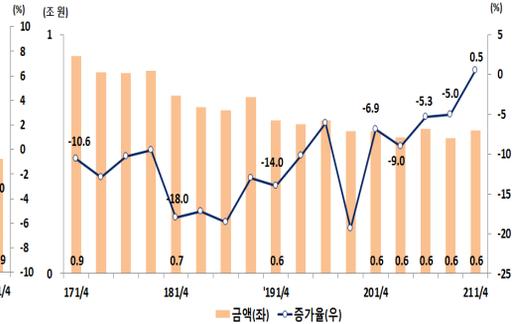
-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중신보험의 신규 판매 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.0% 감소한 2.9조 원을 나타냄
-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저축보험 판매 호조세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5% 증가한 0.6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28〉 보장성보험 사업비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29〉 저축성보험 사업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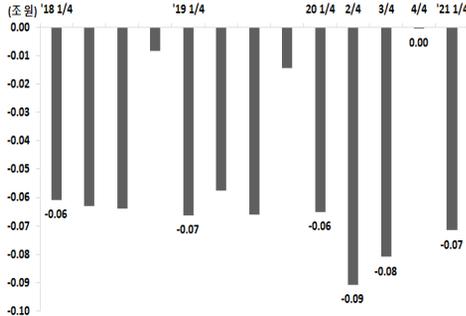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) 재보험 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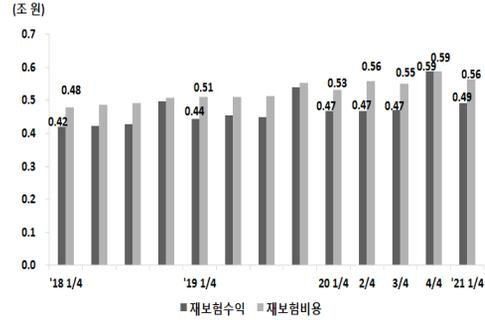
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.07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, 재보험 수익과 재보험 비용은 각각 0.49조 원과 0.56조 원임

〈그림 30〉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1〉 생명보험 재보험수익 및 비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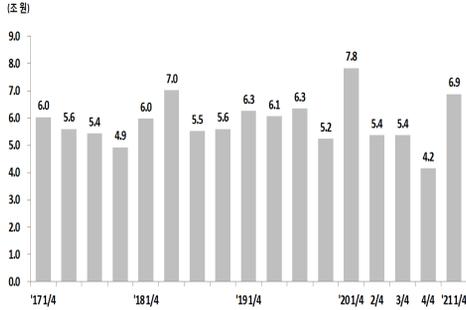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)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

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의 투자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
 - 투자영업이익은 배당수익⁶⁾ 증가 등으로 6.9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, 전년 동기 대비로는 0.9조 원 감소함
 - 영업이익은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, 금리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등으로 2.2조 원 흑자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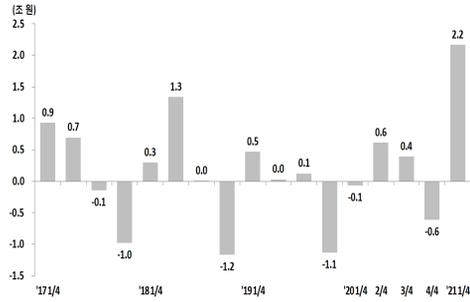
6)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특별배당으로 배당수익이 증가함

〈그림 32〉 투자영업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3〉 영업이익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 후순위채는 3.0조 원으로 총부채에서 0.35%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기타 부채⁷⁾는 39.7조 원으로 총부채 4.51% 비중을 차지함

- 후순위채와 기타부채 비중은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하여 소폭 감소함

〈그림 34〉 후순위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5〉 기타부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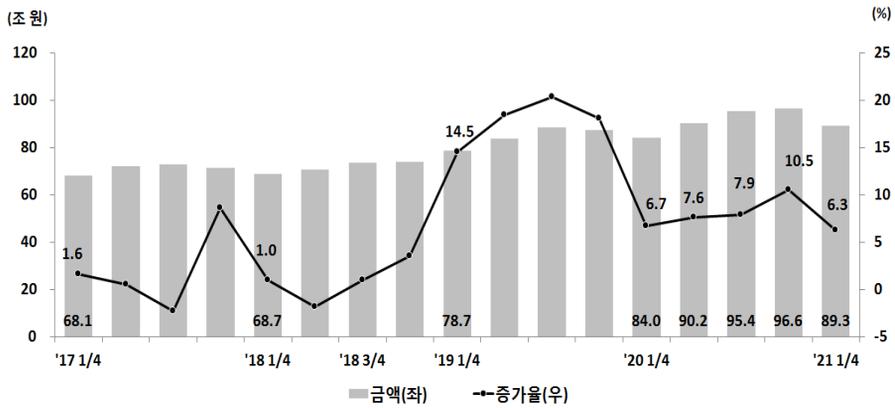
7)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

3) 생명보험 자본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 총자본은 이익잉여금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3% 증가한 89.3조 원을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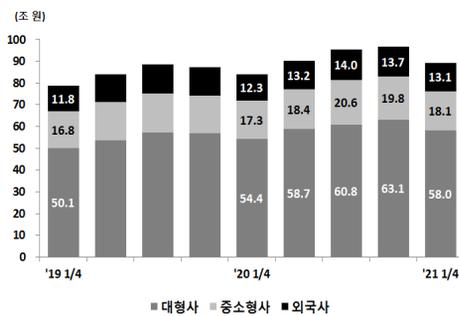
- 그룹별로 보면, 외국사와 대형사의 총자본 증가율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.8%, 6.6% 증가한 반면, 중소형사의 총자본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.7%에 그침

〈그림 36〉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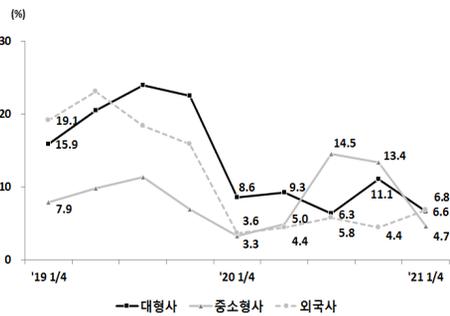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3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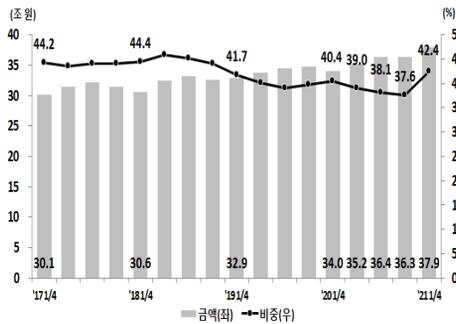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의 이익잉여금과 신종자본증권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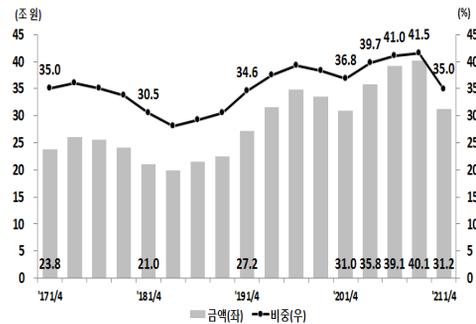
- 이익잉여금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0%p 확대된 42.4%를 나타냄
- 신종자본증권은 4.2조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했으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.7%로 확대됨
-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 비중은 채권 평가이익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.8%p 하락한 35.0%를 기록함

〈그림 39〉 이익잉여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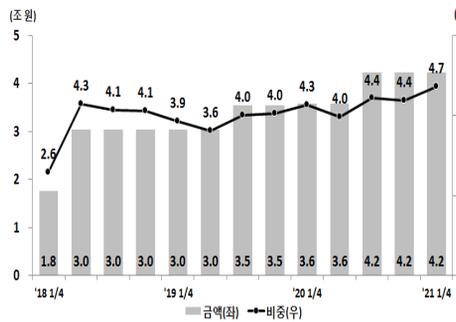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0〉 기타포괄손익누계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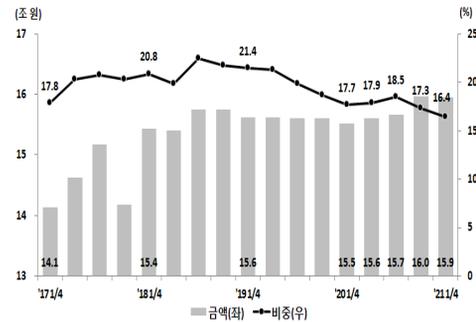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1〉 신종자본증권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2〉 기타자본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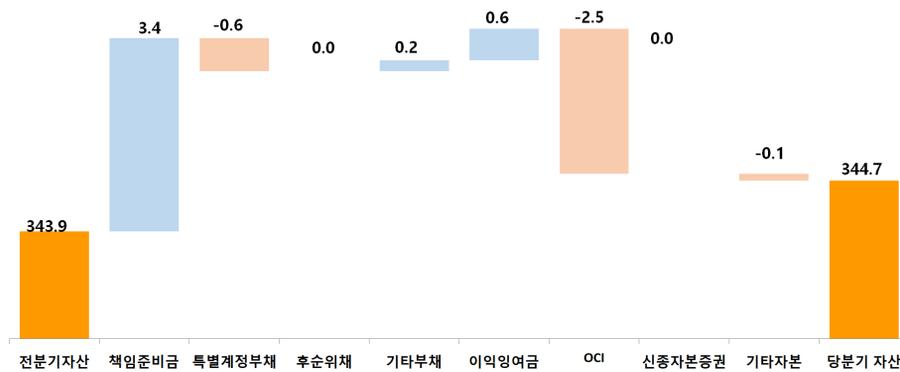
다. 손해보험 성장 요인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0.8조 원 증가하였으며, 책임준비금, 기타부채, 이익잉여금 증가가 자산 성장에 기여함

- 원수보험료 확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가 총자산 성장에 3.4조 원 기여하였으며, 기타부채와 이익잉여금 증가도 각각 0.2조원, 0.6조 원 기여함
- 반면, 특별계정부채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은 각각 전분기 대비 0.6조 원, 2.5조 원 감소함

〈그림 43〉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

(단위: 조 원)



주: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 참고: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〉

-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'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 + 적립이자 - (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) + 기타(LAT 추가 적립 등)'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,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'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'이 드러나지 않음
-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'적립이자 - (위험률차익 + 사업비차익)'을 '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'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
 - 손익계산서로부터 '영업이익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책임준비금전입액'이므로 '책임준비금 전입액 = 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'인데,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
 - 따라서, 책임준비금 증감
 - = 책임준비금전입액 + 기타
 - = [보험영업이익 + 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] + 기타
 - = [(수입보험료 - 보험금 - 사업비) + (재보험수익 - 재보험비용) + 투자영업이익 - 영업이익] +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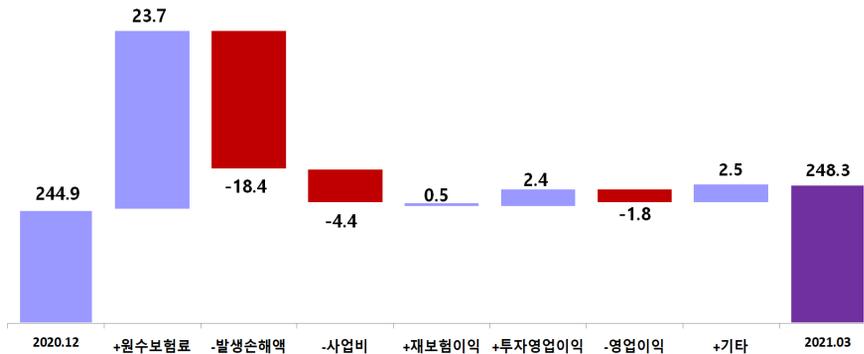
1) 손해보험 책임준비금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3.4조 원 증가함

-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⁸⁾를 차감한 금액은 0.9조 원 흑자를 나타냄
- 투자영업이익과 기타(LAT 추가 적립 등)가 책임준비금 증가에 각각 2.4조 원, 2.5조 원 기여함

〈그림 44〉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

(단위: 조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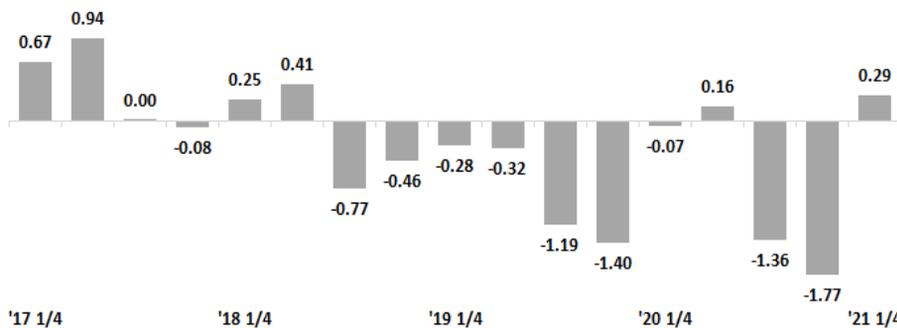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원수보험료 - 발생손해액 - 실제사업비)은 원수보험료 확대와 손해율 개선 등으로 0.29조 원 흑자를 기록함

〈그림 45〉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

(단위: 조 원)



주: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(순사업비 + 이연신계약비 - 신계약비상각비)를 차감함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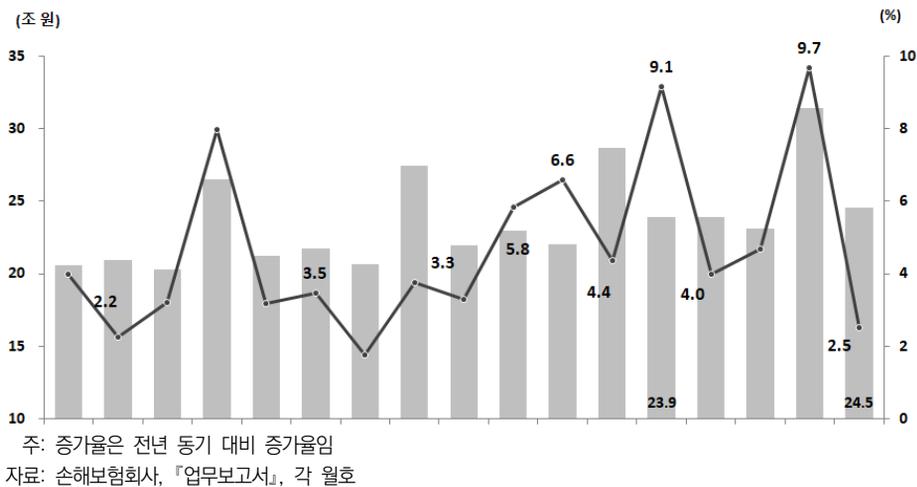
8)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

가) 손해보험 원수보험료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, 자동차보험,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5% 증가에 그친 24.5조 원을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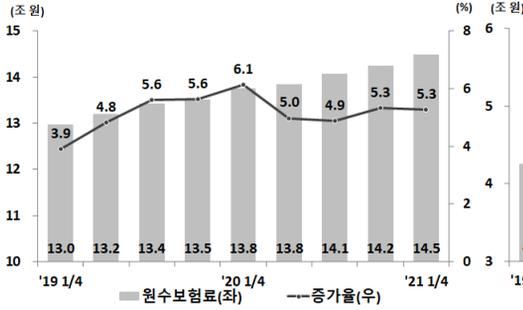
-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의 계속보험료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.3% 증가한 14.5조 원을 기록함
-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5.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3% 증가하였으나,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 반영⁹⁾이 완료됨에 따라 증가세는 둔화됨
-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책임보험과 기타특종보험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8.5% 증가한 3.2조 원을 기록함
-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.9%, 32.7% 감소한 0.7조 원과 1.2조 원을 기록함

〈그림 46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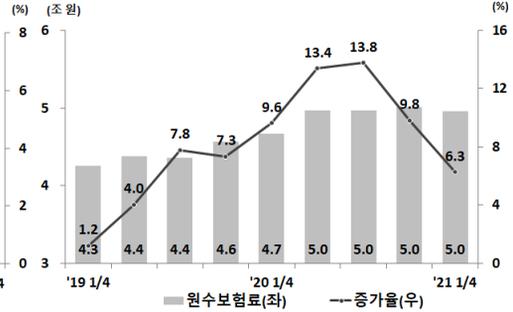
9) 2020년 2월 약 3.5%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졌고, 갱신 시기에 따라 인상률이 순차적으로 적용됨

〈그림 47〉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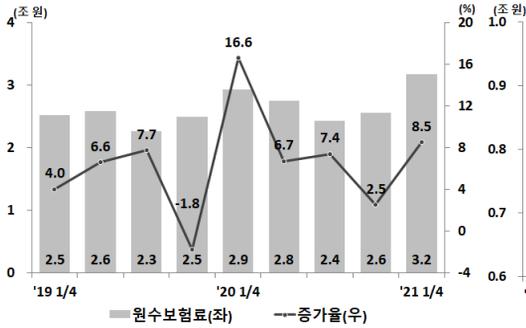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8〉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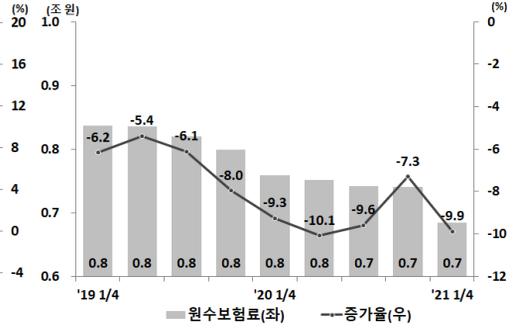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49〉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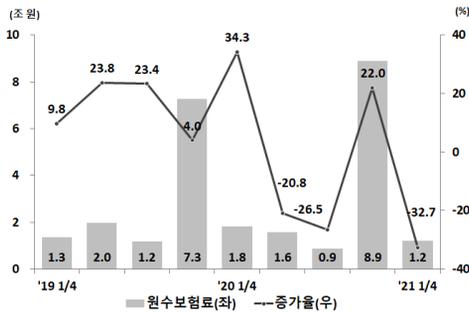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0〉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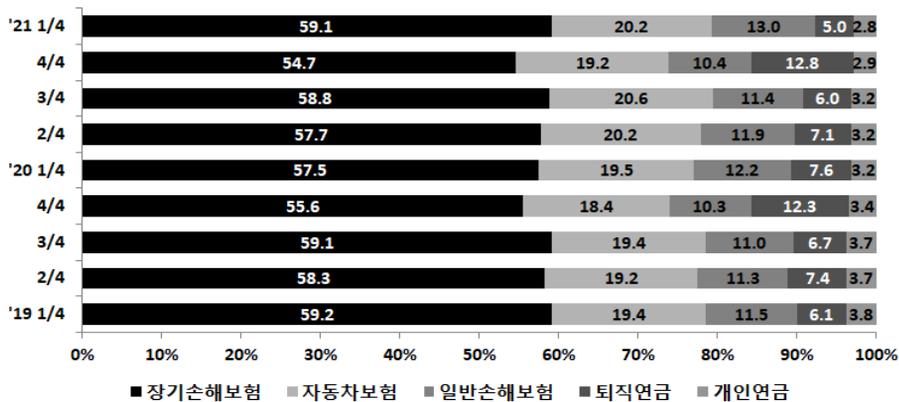
〈그림 51〉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-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, 장기손해보험, 자동차보험,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,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
 -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계속보험료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.6%p 증가한 59.1%를 나타냄
 -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비중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.7%p, 0.8%p 확대된 20.2%, 13.0%를 차지함
 - 반면,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비중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.6%p, 0.4%p 축소된 5.0%, 2.8%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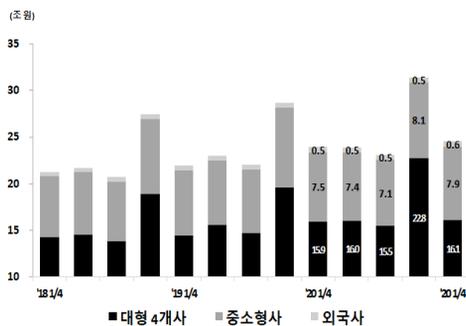
〈그림 52〉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



주: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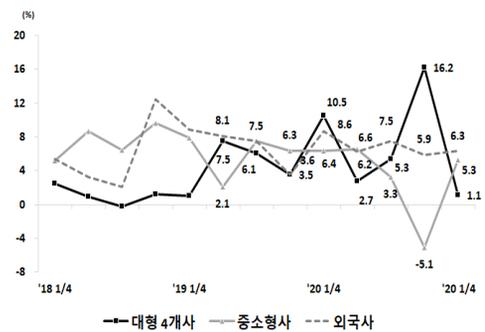
- 회사 유형별로 보면, 2021년 1/4분기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6.3%로 가장 높았음
 - 반면, 중소기업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5.3%였으며, 대형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.1%에 그쳤음

〈그림 53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4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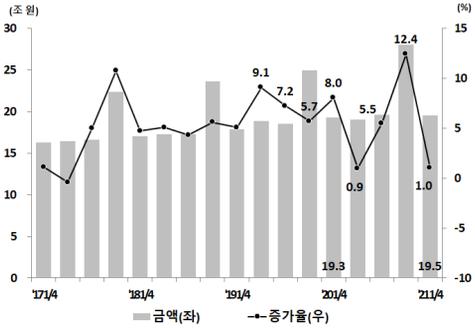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1.0% 증가하였으며, 사업비는 2.5%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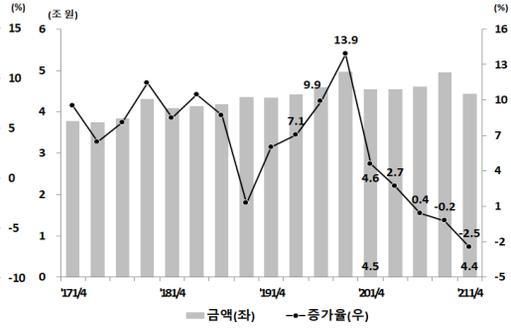
- 발생손해액은 전년 동기기간에 발생한 고액사고¹⁰⁾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.0% 증가에 그침
- 사업비는 판매경쟁 완화와 비대면 채널 판매 확대 등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함

〈그림 55〉 발생손해액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6〉 사업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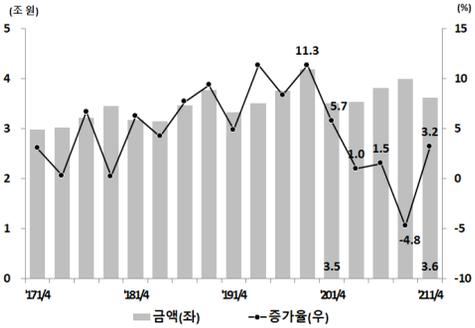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2021년 1/4분기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3.2% 증가하였고,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2.0%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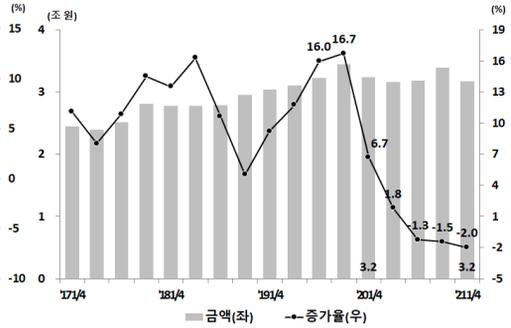
-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운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
-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판매경쟁 완화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

〈그림 57〉 자동차 발생손해액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58〉 장기 사업비


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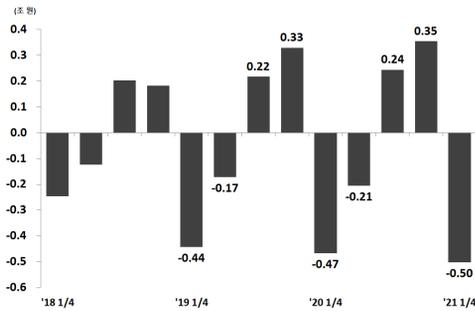
10) 2020년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이 발생함

다) 재보험 이익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.5조 원 적자를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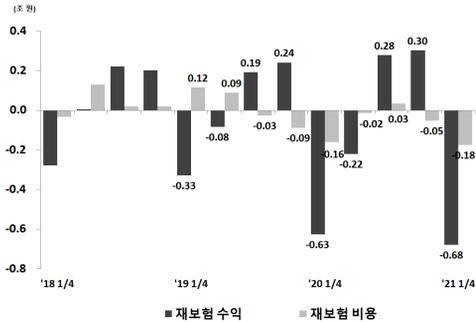
- 재보험 수익은 -0.68조 원으로 적자를 나타냈으나, 재보험 비용은 반대로 0.18조 원 흑자를 나타냄

〈그림 59〉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0〉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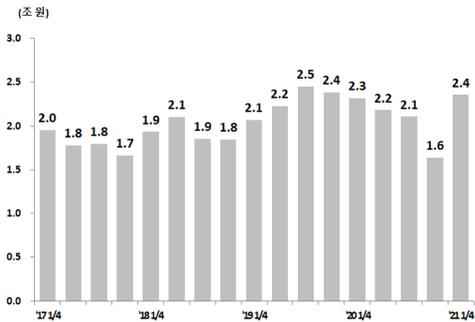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라)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의 투자영업이익은 2.4조 원이었으며, 영업이익은 1.8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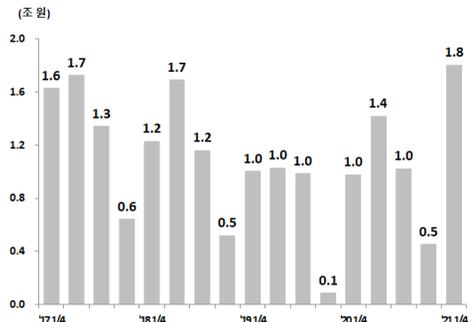
- 투자영업이익은 배당수익¹¹⁾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1조 원 증가하였으며, 영업이익도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8조 원 증가함

〈그림 61〉 투자영업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2〉 영업이익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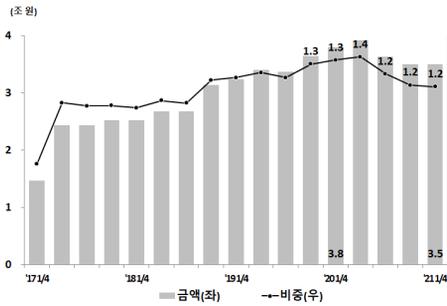
11)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특별배당으로 배당수익이 증가함

2)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의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와 기타부채¹²⁾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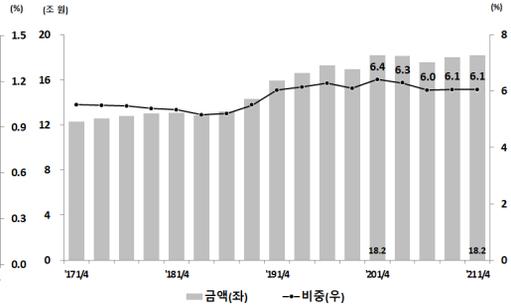
- 후순위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.3조 원 감소한 3.5조 원으로,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2%임
- 기타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18.2조 원으로,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.1%임

〈그림 63〉 후순위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4〉 기타부채



주: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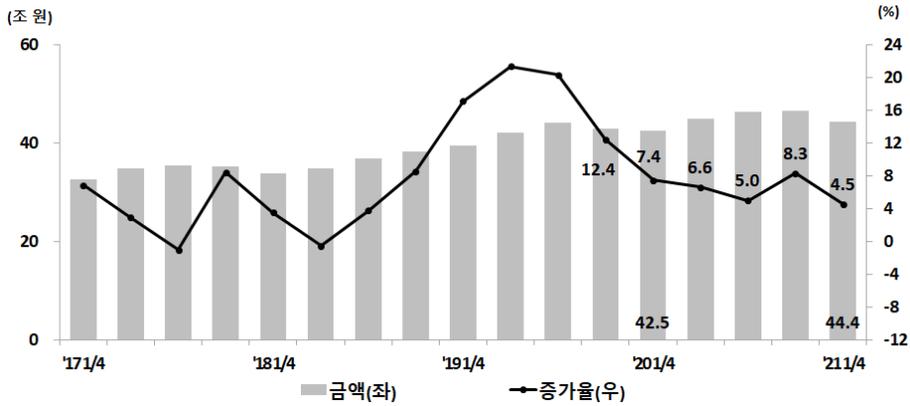
12)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, 특별계정부채,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

3) 손해보험 자본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4.5% 증가한 44.4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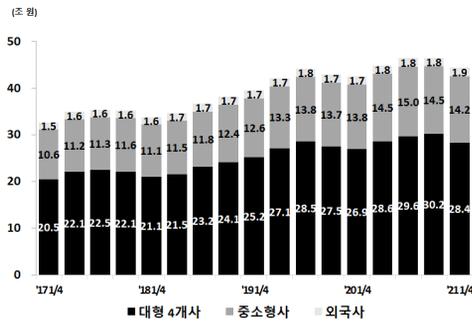
- 대형사와 외국사 총자본은 이익잉여금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8%, 5.3% 증가하였으며, 중소형사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축소¹³⁾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7% 증가에 그침

〈그림 65〉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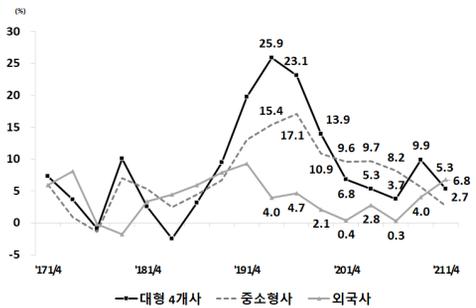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6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7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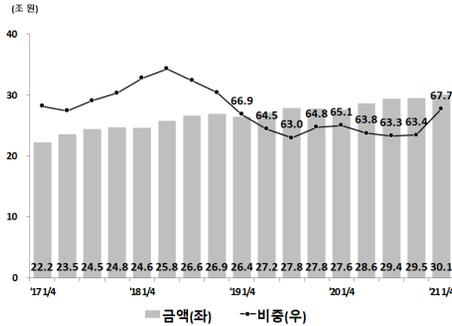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13)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(OCI)에 포함됨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의 이익잉여금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.7%로 당기순이익 증가
 등으로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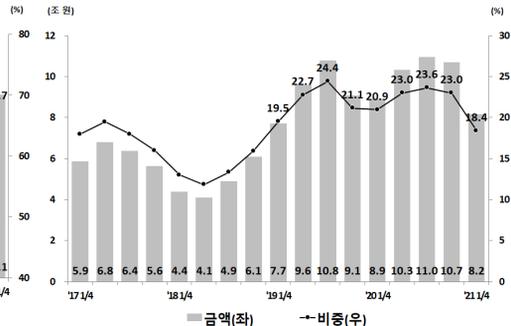
-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비중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의 평가이익 감소로 인해 18.4%로 축소됨
- 한편, 신종자본증권 비중은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¹⁴⁾으로 2.7%로 확대됨

〈그림 68〉 이익잉여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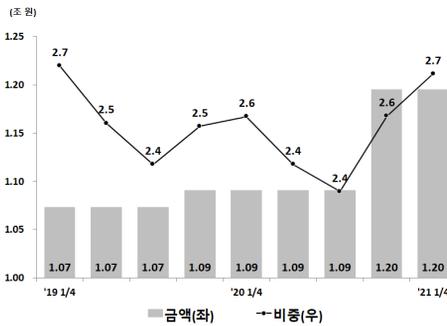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69〉 기타포괄손익누계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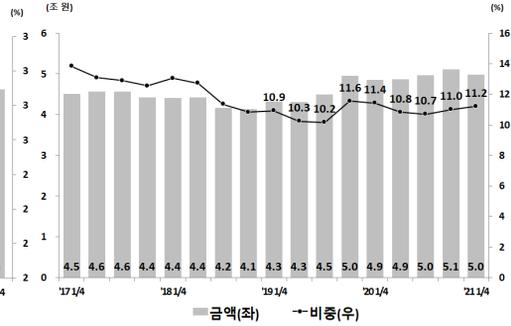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0〉 신종자본증권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1〉 기타자본



주: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14) 2020년 11월 메리츠화재는 1,15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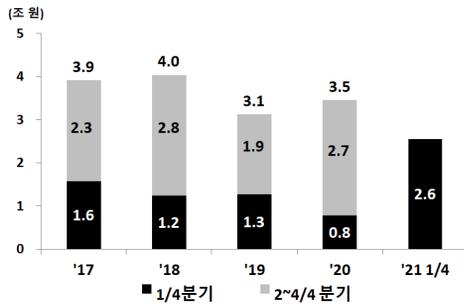
2. 수익성

가. 당기순이익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8.3%, 91.5%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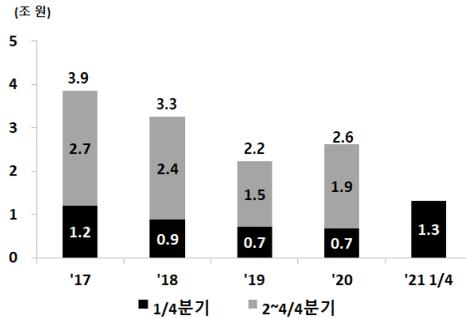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전입액 감소와 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보험영업 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됨
- 손해보험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손해를 하락, 전년도 고액사고¹⁵⁾의 기저효과 등으로 보험영업손익이 크게 개선되었고 배당수익도 확대됨

〈그림 72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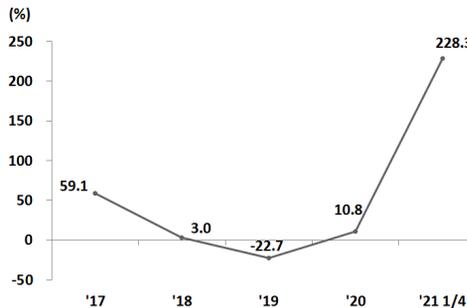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3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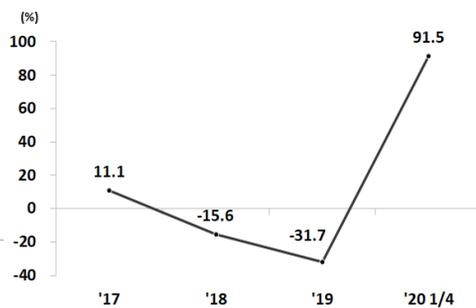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4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75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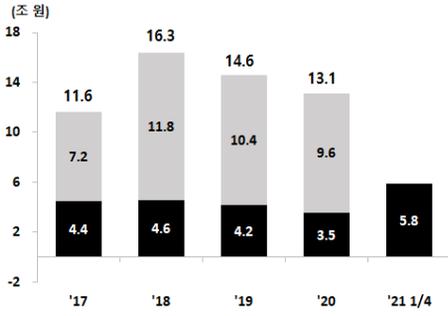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15) 2020년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이 발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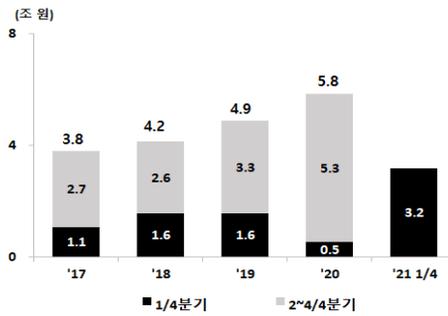
○ 2021년 1/4분기 은행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.8% 증가한 5.8조 원을, 증권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9.9% 증가한 3.2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76〉 은행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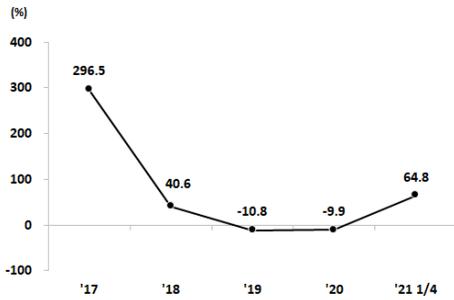
주: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
 자료: 금융감독원

〈그림 77〉 증권 당기순이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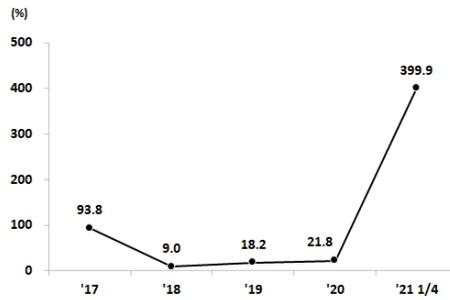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〈그림 78〉 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금융감독원

〈그림 79〉 증권 당기순이익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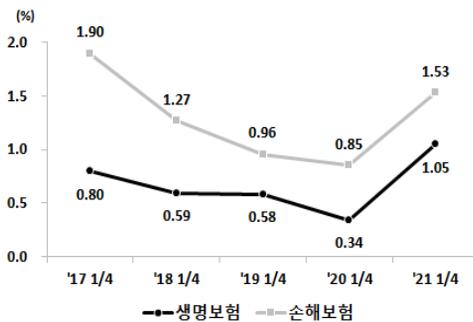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금융감독원

나. ROA, ROE

○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ROA와 ROE는 모두 당기순이익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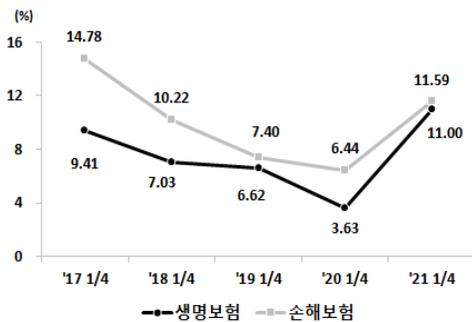
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산업 ROA는 1.05%로 전년 동기 대비 0.71%p 상승하였으며, 손해보험산업 ROA는 1.53%로 전년 동기 대비 0.68%p 상승함
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산업 ROE는 전년 동기 대비 7.37%p 상승한 11.00%를,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 대비 5.15%p 상승한 11.59%를 나타냄

〈그림 80〉 보험산업 ROA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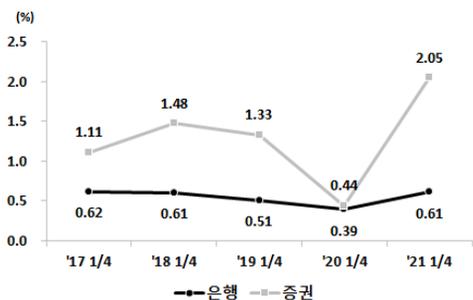
〈그림 81〉 보험산업 ROE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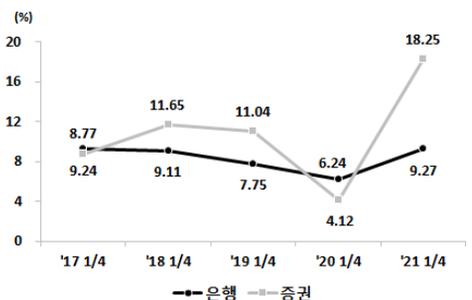
○ 은행 및 증권산업의 ROA와 ROE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함

〈그림 82〉 은행 및 증권산업 ROA



자료: 금융감독원

〈그림 83〉 은행 및 증권산업 ROE
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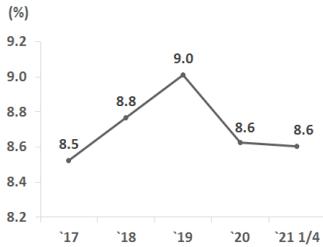
다.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

1) 생명보험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¹⁶⁾은 2020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으며, 사업비율과 지급률¹⁷⁾은 2020년 말 대비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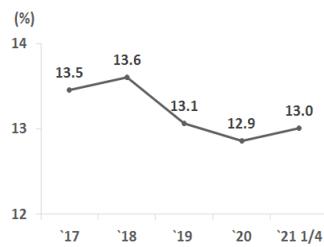
- 해지율은 2021년 1/4분기 8.6%를 나타냈으며, 중소형사의 경우 해지율은 2018년 말부터, 외국사의 경우에는 2019년 말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- 사업비율은 2020년 말 대비 0.1%p 상승한 13.0%를 나타냈으며, 대형사 및 외국사의 사업비율은 전년 말 대비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감소함
-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의 영향으로 2021년 1/4분기 98.9%를 나타냈고, 1분기에 높은 계절적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준임

〈그림 84〉 생명보험 해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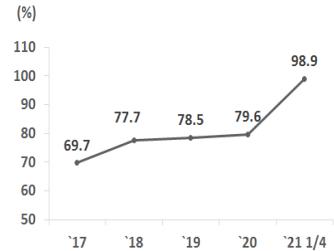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5〉 생명보험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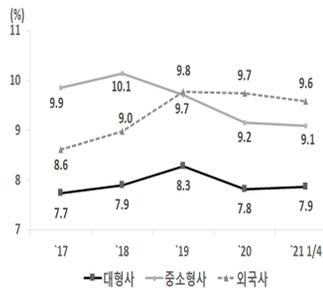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6〉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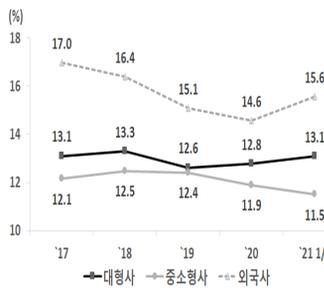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7〉 회사 유형별 해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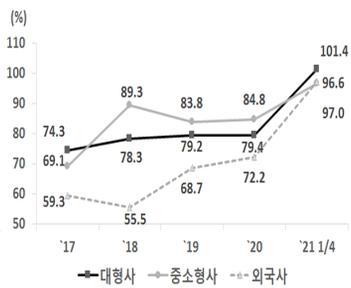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8〉 회사 유형별 사업비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89〉 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16) 해지율 = (효력상실액 + 해지액) / (연초보유계약액 + 신계약액)으로 계산하며, 2021년 1/4분기는 연율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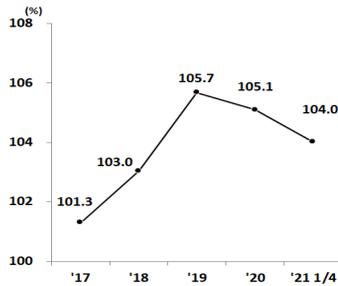
17) 사업비율 = 사업비 / 수입보험료, 보험금 지급률 = 지급보험금 / 수입보험료

2) 손해보험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은 손해를 개선으로 전년 말 대비 1.1%p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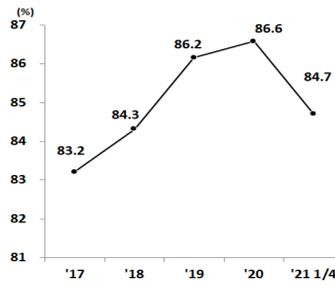
- 손해보험산업 손해율은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전년 말 대비 1.9%p 개선된 84.7%를 기록함
- 사업비율은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의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0.8%p 상승한 19.3%를 나타냄

〈그림 90〉 손해보험 합산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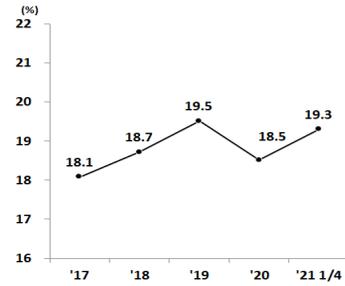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1〉 손해보험 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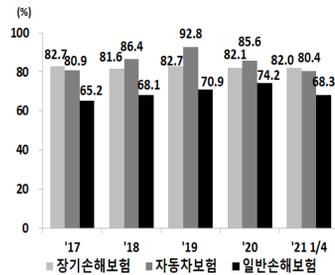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2〉 손해보험 사업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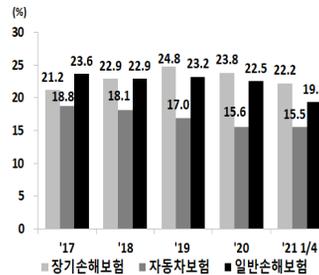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3〉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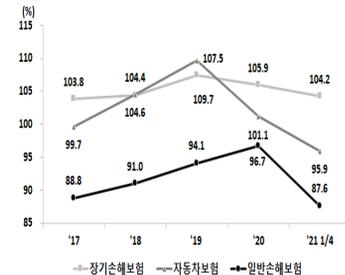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4〉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5〉 손해보험 합산비율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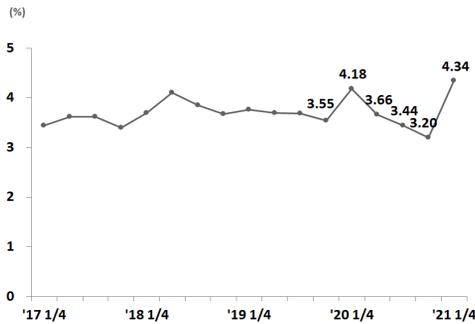
라.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

1) 운용자산이익률

○ 2021년 1/4분기 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, 특히 손해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이 크게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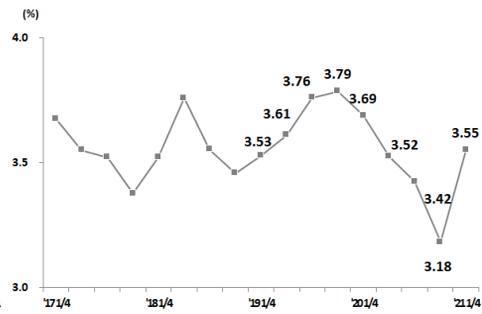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.16%p 상승한 4.34%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금리·주가 상승 및 배당수익 증가 때문임
-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배당수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의 채권 매각 이익 확대에 따른 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14%p 하락한 3.55%를 기록함

〈그림 96〉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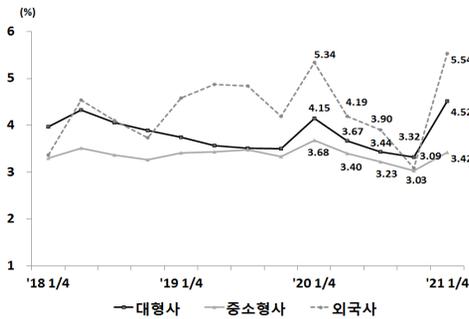
〈그림 97〉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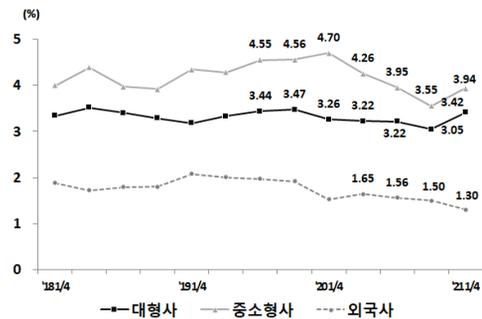
○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,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상승한 반면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하락함

〈그림 98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


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99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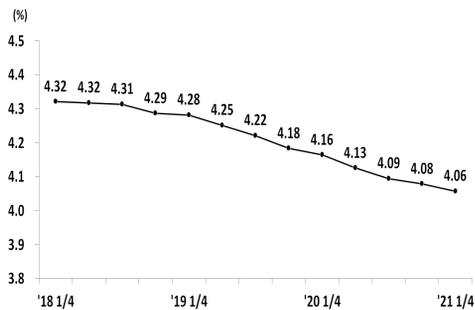
주: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손익 / 기중운용자산
 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)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산업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4.06%로 2018년 1/4분기 4.32%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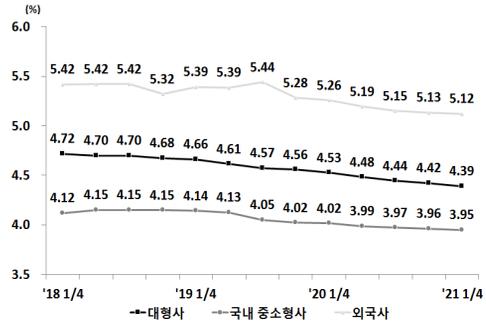
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4.34% 보다 2.8%p 낮은 수준임
- 회사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, 중소형사, 외국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각각 4.39%, 3.95%, 5.12%로, 모든 그룹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말 대비 대형사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큼

〈그림 100〉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



주: 평균 금리 = (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×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) / 총보험료 적립금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01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



주: 평균 금리 = (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×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) / 총보험료 적립금
 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마. 이익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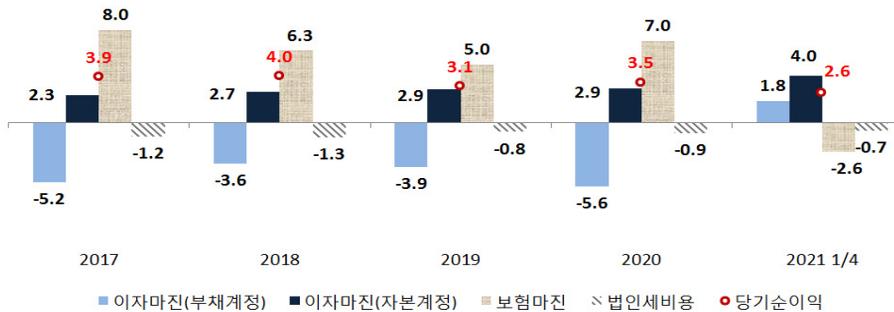
1)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○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이자마진은 5.8조 원, 보험마진은 -2.6조 원이었으며, 전체 당기순이익은 2.6조 원 흑자를 기록함

- 자본계정 이자마진은 운용자산이익률 상승으로 4.0조 원을 기록하였고, 부채계정 이자마진은 운용자산 이익률이 보험부채 적립이율보다 높아 1.8조 원을 기록함
- 보험마진은 지급보험금 증가 등으로 -2.6조 원을 나타냄

〈그림 102〉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- 주: 1) 이자마진(부채계정) =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× (자산운용이익률 -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)
 2) 이자마진(자본계정) = 자본 평균 잔액 × 자산운용이익률
 3) 보험마진 =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- 이자마진(부채계정) - 이자마진(자본계정)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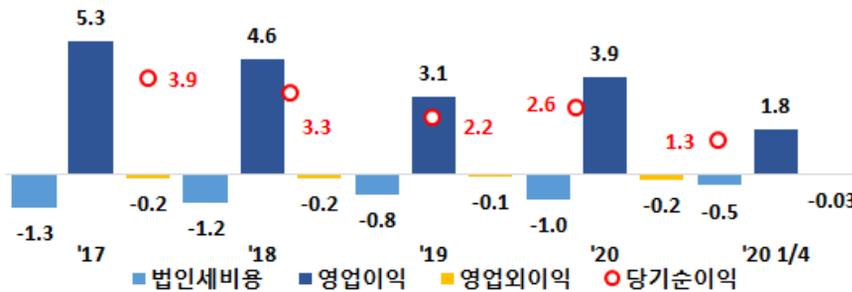
2) 손해보험

가) 당기순이익 구성

-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손해를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으로 1.3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고, 영업이익은 1.8조 원 흑자, 영업외이익은 0.03조 원 적자를 기록함

〈그림 103〉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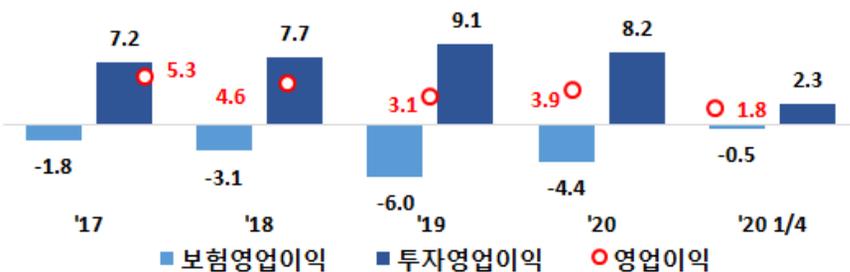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) 영업이익 구성

-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면서 흑자를 기록하였고, 보험영업에서는 0.5조 원 적자를, 투자영업에서는 2.3조 원 흑자를 기록함
-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손해를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이 축소되었고, 투자영업이익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투자수익률 개선과 배당수익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.7% 증가함

〈그림 104〉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

(단위: 조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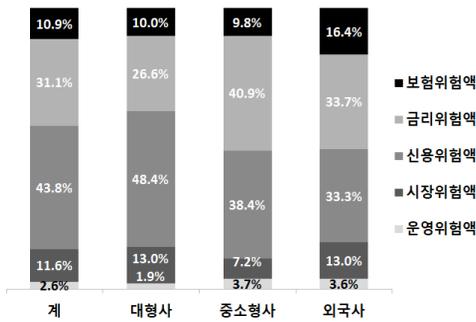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3. 리스크

○ 2021년 3월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산업별·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리스크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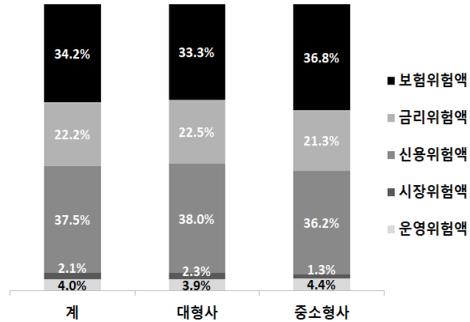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48.4%로 가장 높은 반면,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금리위험액 비중이 각각 40.9%, 33.7%로 높게 나타남
-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, 중소형사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각각 38.0%, 36.2%로 높게 나타났으며, 보험위험액 비중이 각각 33.3%, 36.8%를 차지함

〈그림 105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
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〈그림 106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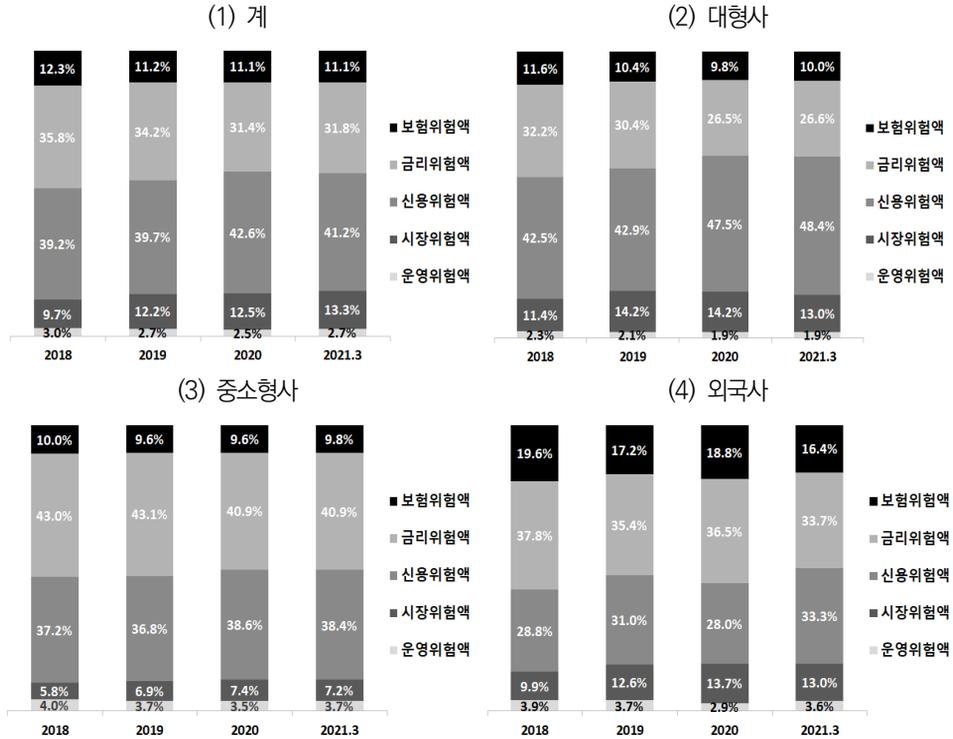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○ 2021년 3월 말 생명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.4%p 감소한 반면, 대부분의 다른 보유 위험 비중은 증가함

- 대형사의 경우 보유 위험 중 시장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말 대비 1.2%p 감소한 반면, 신용위험과 보험위험, 금리위험은 각각 0.9%p, 0.2%p, 0.1%p 증가함
-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위험과 운영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전년 말 대비 0.2%p 증가하였고,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전년 말 대비 0.2%p 감소함
- 한편, 외국사는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5.3%p 크게 증가하였고,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전년 말 대비 2.4%p, 2.8%p 감소함

〈그림 107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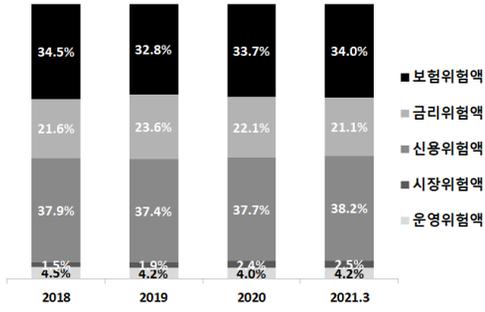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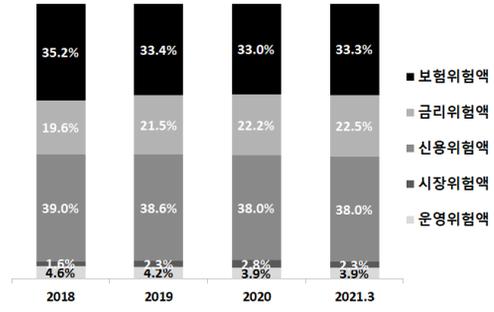
- 2021년 3월 말 손해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중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말 대비 1.0%p 감소하였으며, 나머지 보유 위험은 증가함
 - 대형사의 경우 시장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0.5%p 감소한 반면,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전년 말 대비 0.3%p 증가함
 - 외국사는 보험위험과 운영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1.1%p, 0.1%p 증가함 반면, 금리위험,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말 대비 0.4%p, 0.7%p, 0.2%p 감소함

〈그림 108〉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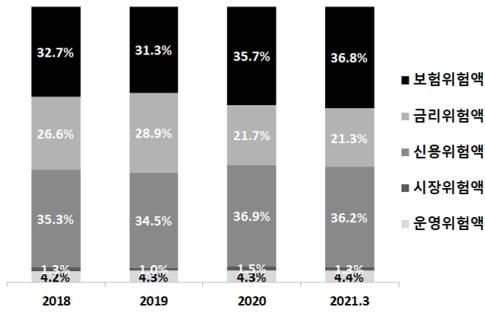
(1) 계



(2) 대형사



(3) 중소형사



주: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, 금리위험액 순임
 자료: 경영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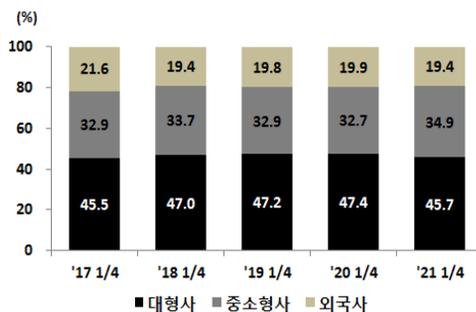
4. 시장경쟁

가. 시장점유율

1) 생명보험 시장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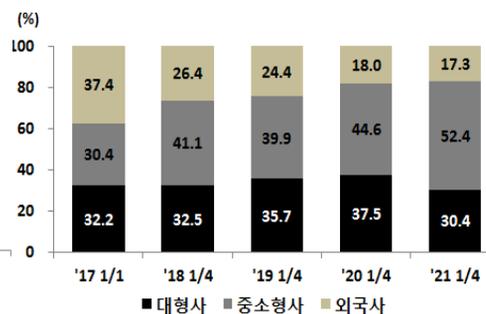
- 그룹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21년 1/4분기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, 대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
 -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변액보험의 신규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2%p 증가한 34.9%를 나타냄
 - 대형사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5.7%, 19.4%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.7%p, 0.5%p 감소함
- 그룹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, 2021년 1/4분기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됨
 - 일부 중소형사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 확대가 중소형사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확대의 주요한 요인임
 - 반면, 대형사와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.1%p, 0.7%p 축소됨
- 2021년 1/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¹⁸⁾는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한 979,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1 상승한 1,369임
 -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일부 중소형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승함

〈그림 109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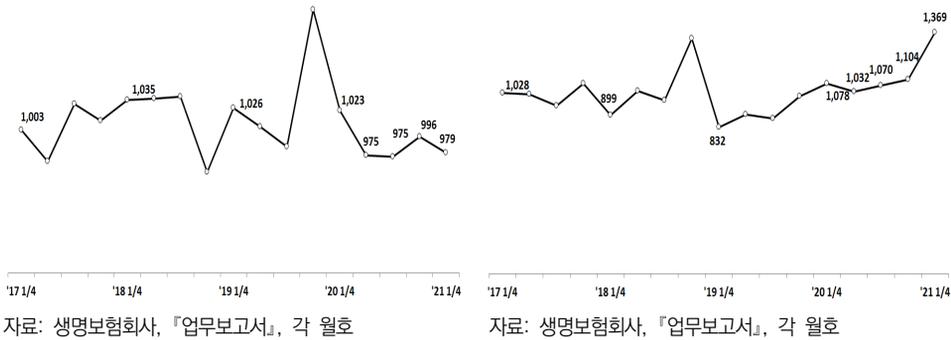
〈그림 110〉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18)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, 일반적으로 지수가 1,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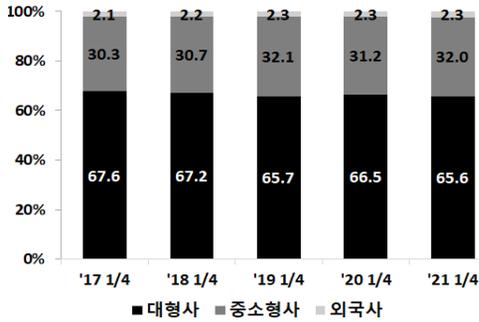
〈그림 111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〈그림 112〉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



2) 손해보험 시장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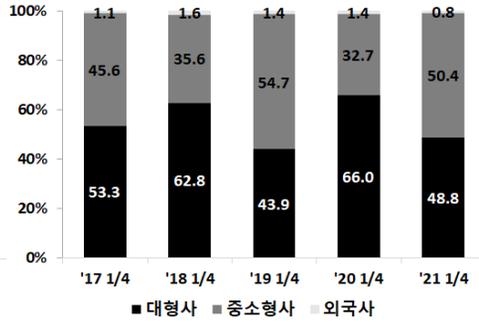
-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
 -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21년 1/4분기 32.0%로 전년 동기 대비 0.8%p 확대되었고, 같은 기간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65.6%로 0.9%p 축소됨
- 2021년 1/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됨
 -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20년 1/4분기 32.7%에서 2021년 1/4분기 50.4%로 확대됨
 - 같은 기간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66.0%에서 48.8%로 축소되었으며, 외국사 점유율도 1.4%에서 0.8%로 축소됨
-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,3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하락하였으며,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,249로 전년 동기 대비 258 하락함

〈그림 113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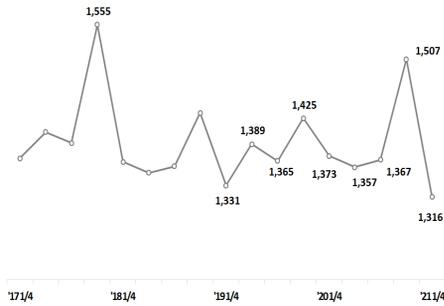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14〉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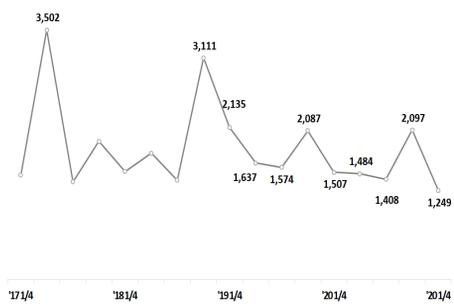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15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16〉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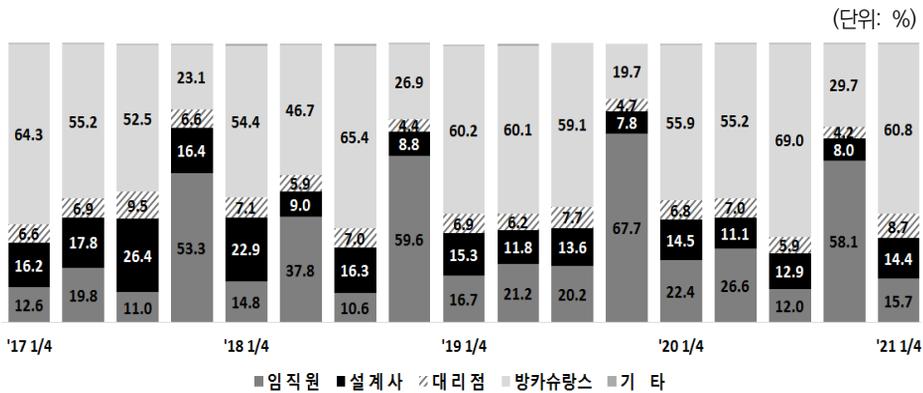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나. 판매채널

1) 생명보험 판매채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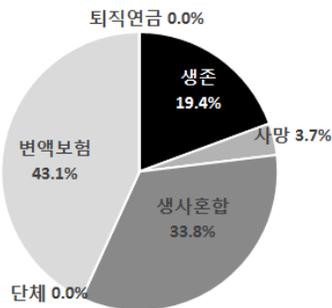
- 2021년 1/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.9%p 증가한 60.8%를 나타낸 반면, 설계사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비대면 채널 판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1%p 감소한 14.4%를 기록함¹⁹⁾

〈그림 117〉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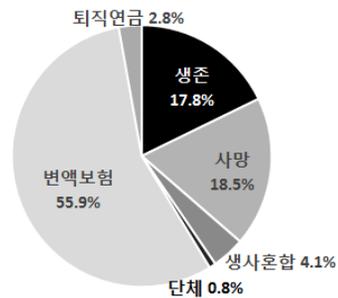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18〉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
(2021년 1/4분기)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19〉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
(2021년 1/4분기)

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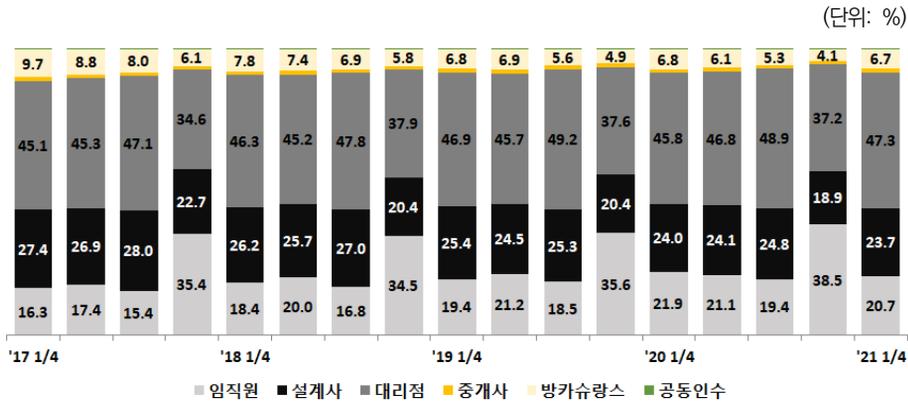
19) 보험회사의 비대면 채널 실적은 임직원 채널 실적에 포함되며, 대리점 채널의 경우도 비대면 채널이 존재함

2) 손해보험 판매채널

○ 2021년 1/4분기 손해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대리점 채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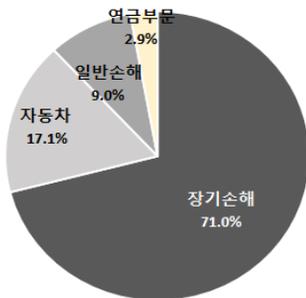
- 대리점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장기손해보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.5%p 확대된 47.3%를 나타낸 반면, 설계사, 임직원, 방카슈랑스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3.7%, 20.7%, 6.7%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.3%p, 1.2%p, 0.1%p 축소됨

〈그림 120〉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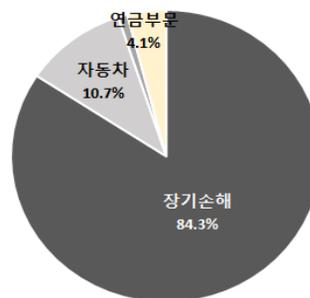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21〉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(2021년 1/4분기)

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122〉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(2021년 1/4분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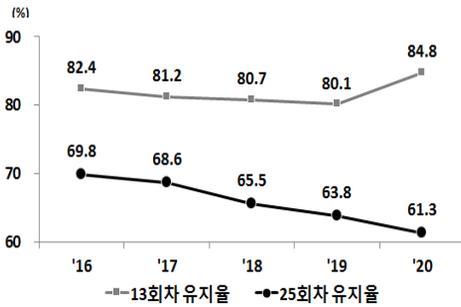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다. 보험계약 관리

○ 2020년 13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19년도에 비해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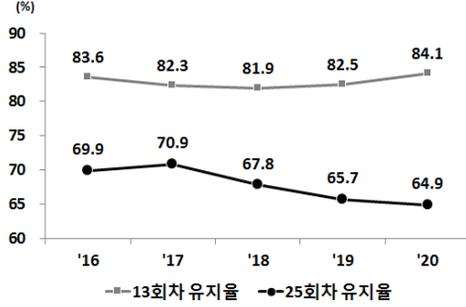
- 반면, 2020년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도에 비해 하락함

〈그림 123〉 생명보험 계약유지율



자료: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종합공시

〈그림 124〉 손해보험 계약유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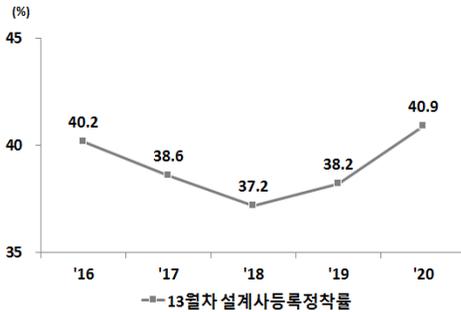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종합공시

○ 2020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모두 전년에 비하여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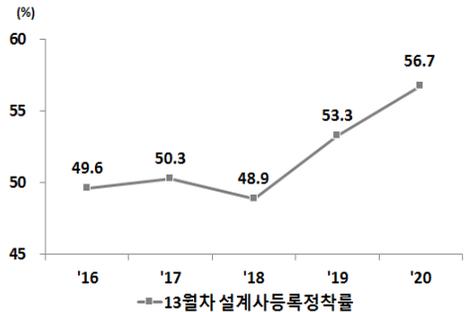
-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13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은 2019년 상승 전환 후 2020년에도 상승세를 지속함

〈그림 125〉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



자료: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종합공시

〈그림 126〉 손해보험 설계사 등록 정착률



자료: 금융감독원, 보험회사종합공시

도서회원 가입안내

회원	연회비	제공자료
법인 회원	₩30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보고서 - 기타보고서 - 연속간행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험금융연구 · 보험동향 · 해외 보험동향 · KOREA INSURANCE INDUSTRY
특별 회원	₩150,000원	
개인 회원	₩150,000원	

영문 연차보고서
추가 제공

* 특별회원 가입대상 :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



가입 문의

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
전화 : (02)3775-9113 | 팩스 : (02)3775-9102



회비 납입 방법

무통장입금
- 계좌번호 : 국민은행 (400401 - 01 - 125198) | 예금주: 보험연구원



자료 구입처

서울 : 보험연구원 자료실(02-3775-9113 | lsy@kiri.or.kr)

보험동향 98호 [2021년 여름호]

발행일 2021년 8월
발행인 안철경
발행처 보험연구원
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
문의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(02-3775-9091)
인쇄소 경성문화사

ISSN 1228-310X

정가 10,000원